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불교 중단입니다.

###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어

오늘은 찬란한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힌 부처님께서 연꽃처럼 맑은 향기와 대자대비하신 원력으로 무명(無明)의 어둠에 쌓여있는 어리석은 중생을 구제하시고자 나투신 참으로 뜻깊고 행복한 날입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모든 사부대중에게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자비와 지혜와 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여 행복과 희망, 선업과 복덕이 충만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종령 효 강

樂自追(복락자추)나니 如影隨形(여영수형) 이나리.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요, 마음이 주가 되고 마음이 시키나니, 마음속으로 선한 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행동 또한 그러하리라. 그 때문에 복과 락이 저절로 따르나니, 마치 형체를 따르는 그림자와 같으니라)

이렇게 부처님께서서는 마음은 모든 행위의 근본임을 깨달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고귀한 마음씨와 최상의 행복을 얻게 하는 가르침과 모든 괴로움을 벗어 버리고 당당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굳건한 믿음과 실천으로 미혹의 어두운 그림자를 거두어 내시고, 깨달음을 증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자비의 등불이 되어 병으로 신음하는 모든 이들에게 약이 되고, 굶주리는 이들에게 양식이 되어서 고통받는 모든 인류에게 평화와 자유의 빛을 밝히는 향기로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성불이란 여실지자심(如實知自心)이라 하셨습니다. "心爲法本(심위법본)이요, 心轉心使(심존심사)이니, 中心念惡(중심념악)하면 卽言卽行(즉언즉행)이라, 罪苦自追(죄고자추)나니 車輪於轍(거력어철)이니라.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요, 마음이 주가 되고 마음이 시키나니, 마음속으로 악한 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행동 또한 그러하리라. 그 때문에 괴로움이 스스로 따르나니, 구르는 수레바퀴 따라 자국이 생기나리)

心爲法本(심위법본)이요, 心轉心使(심존심사)이니, 中心念善(중심념선)하면 卽言卽行(즉언즉행)이라, 福

### “부처님 자비 지혜 광명이 가득이길”

아울러 부처님께서서는 원력과 의지력으로 남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 저 미생물까지도 불성(佛性)을 가진 소중한 존재임을 자각하는 마음, 청정하고 아름다운 마음자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불자의 사명임을 천명하셨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부처님의

본불성(本佛性)과 자리아타의 등불을 켜야 합니다. 내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 나아가 일체중생 모두가 부처님의 본성을 간직한 고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지혜의 등불, 이웃과 사회를 위해 사랑과 봉사를 다짐하는 원력의 등불, 불퇴전의 용맹심으로 대자대비를 실천하기 위한 정진의 등불을 켜야 합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는 오늘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투신 참 뜻을 되새기며, 자비와 지혜로 모든 중생이 부처임을 깨닫고, 밝고 청정한 마음, 남과 이웃을 위한 등불을 밝혀서 탐욕과 증오와 망상이 사라진 서로 나누고 화해하며 향기로운 광명천지의 불국토를 만들기 위해 용맹정진 합시다.

음마니반메훤, 음마니반메훤, 음마니반메훤 성도합시다.

心爲法本(심위법본)이요, 心轉心使(심존심사)이니, 中心念善(중심념선)하면 卽言卽行(즉언즉행)이라, 福

### 부처님오신날 봉축사

불기2552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모든 사부대중들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를 실천하고, 대립과 갈등의 질곡을 벗어나 해탈과 열반의 길로 인도되시고, 각 가정과 사회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총리원장 원 송

그리고 우리 주위에 살아있는 모든 중생이 다름아닌 부처임을 자각함으로써 고통받는 중생을 외면하지 않으며, 나아가 미워하고 헐뜯고 억압하는 마음을 없애는 것입니다.

병고와 절망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중생의 아픔을 공유한 동체대비의 실천은 부처님께서 이 땅에 나투신 참 뜻을 달성하는 일이며, 무명(無明)과 이기심(利己心)에 허덕이는 중생을 제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와 너라는 분별심이 자리잡고 있다면 그것은 바른 실천의 길이 될 수 없으며 실천했다

는 중생을 제도하는 것입니다. 해도 거지와 위선에 불과 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서는 무명(無明)에 빠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원만구족한 지혜를 몸소 깨달아 일깨워주시고, 일생동안 동체대비의 실천수행으로 탐, 진, 치에 물든 중생을 제도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셨습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삶은 비록 역사적으로 유한했지만 깨달음의 요체로서의 법신(法身)은 사공(時空)을 초월하고 생멸(生滅)에 들지 않는 영구불변한 존재로서 지금도 온 우주법계에 충만해 있습니다.

우주법계에 충만하신 부처님께서서는 팔만사천 법문을 내 마음속에서 체득하거나 실천하지 않으면 법문이 아무리 좋아해도 허공의 말임을 강조하시고 믿음과 실천은 들이 아니요, 하나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실천하는 것은 신·구·의로 짓는 죄업을 금하며, 특히 입으로 짓는 구설, 즉 꾸며서 남을 어렵게 하지 않는 것, 망어로 남을 어지럽히지 않는 것, 앙설하여 이간하지 않음, 악구하여 남을 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 “동체대비 실천이 부처님 오심을 기리는 일”

참다운 실천은 “나의 마음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하는 것에 귀착됩니다. 내 마음을 청정하고 올바르게 닦는 데 정진한다면 나의 실천은 저절로 되는 것이며 구경에는 성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경구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닦고 닦으며 실천하는 가운데 나의 불성은 절로 밝혀지고, 번뇌와 망상은 사라지고 행복한 해탈을 이루게 됩니다.

부처님 오신날의 참 뜻을 되새기며 우리 모두가 대자대비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보살도 실천에 일심 정진합시다. 성도합시다.

##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 불기 2552년 부처님 오신날 행사 다채



△ 5월 4일 동대문 축구장에서는 사부대중 2만 5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어울림마당(연등법회)이 펼쳐졌다.

불기 2552년 부처님오신날(5월 12일)을 앞두고 불교계가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라는 포어를 내걸고 다채로운 봉축행사를 마련했다. 총지중도 궁중복과 아름다운 전통의상으로 치장한 기수단과 서울 경인지역 등의 스승과 교도들이 참석해 축제에 참가했다.

올해 연등축제는 5월 3일 조계사에서 인사동사거리, 종로2가를 거쳐 조계사로 되돌아오는 길에서 3,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연등놀이 전야제를 개최했다.

5월 4일은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조계사 앞길에서 불교와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100여 개의 부스가 마련돼 불교문화마당이 마련됐다.

오후 3시부터 동대문 축구장에서는 2만 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어울림마당(연등법회)이 펼쳐졌다. 200여개의 대형 전통등을 비롯, 7만~8만개의 등으로 이루어진 제등행렬은 오후 7시 동대문운동장을 출발해 조계사를 향해 행진했다.

봉축위원회는 동대문운동장 철거가 예정돼 있어 당초 어울림마당은 잠실체조경기장에서 치르고, 제등행렬은 동국대에서 출발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가 철거를 연기해 마지막으로 동대문운동장에서 행사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이날 제등행렬에 앞서 오후 5시~7시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 퍼레이드가 중

요에서 시청 앞 광장 구간에서 열려 이날 종로 일대는 완전히 축제분위기를 띠고 있었다.

제등행렬이 끝난 오후 9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보신각 앞 종각 네거리에서는 대동한마당(음악회)이 열렸으며 오후 11시께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는 가운데 강강술래로 연등축제가 마무리됐다.

한편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는 지난 달 21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대형 잠정 등(높이 11.5m)의 점등식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12일까지 서울 종로 일대와 강남 봉은사 등에서 연등놀이, 제등행렬 등 다양한 축제행사를 갖는다.

전국의 사찰과 주요 거리에서 연등이 불을 밝힌 가운데 5월 12일까지 강남 봉은사 경내에서 80점의 전통등 전시회가 열린다. 올해는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청계천 물가에 전통등과 가로연등이 설치된다. 불교종단협의회는 오는 5월 23일까지 청계천 등달기를 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봉축 기념행사가 여러 불교단체 주최로 마련됐다. 조계종 총무원과 봉축위원회 행사기획단은 지난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연등제의 역사와 전통’을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개최했다.

봉축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초파일 100년사>에 따르면 1955년 조계사 인군을 돌아오는 제등행렬이 시작됐으며,

96년부터 동대문운동장에서 제등행렬을 시작해 조계사에 이르는 종로 구간에서 연등을 밝히고 행진하는 축제를 해왔다.

어린이를 위한 행사로는 ‘어린이 연꽃노래잔치’(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 그리기 대회’(5월 5일 목이박물관) 등이 마련되며 외국인들이 함께 하는 ‘불교문화체험 한마당’(5월 5일 인사동)도 열린다.

‘이웃을 위한 희망 등 달기’(5월 21~23일 인사동) 등 장애인, 난치병어린이 등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미는 행사도 마련된다. 봉축 법요식은 5월 12일(월) 오전 10시 조계사와 전국 사찰에서 봉행된다.

<관련특집 화보 12면>

### 이 달의 종조법설

밀교의 신앙은 대체로 대일신앙(大日信仰), 관음(觀音)신앙, 약사(藥師)신앙, 지장(地藏)신앙으로 분류되는데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므로 밀교에 입문하여 어느정도 수행이 깨도에 오르면 결연관정(結緣灌頂)이라는 의식으로 자기신앙 대상인 불보살과 인연을 맺는 것이다.

-1장 교상과 사상 중

## 총기37(불기2552)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불교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합니다. 진언밀교 총지도량에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종령 효 강

총리원장 원 송

- |          |     |          |     |          |       |          |       |
|----------|-----|----------|-----|----------|-------|----------|-------|
| 중앙총의회의장  | 우 승 | 법 장 원 장  | 법 공 | 사 감 원 장  | 지 성   | 교 육 원 장  | 화 령   |
| 총 무 부 장  | 경 원 | 재 무 부 장  | 시 정 | 교 정 부 장  | 선 도 원 | 사 회 부 장  | 인 선   |
| 서울경인 교구장 | 법 등 | 부산경남 교구장 | 대 원 | 대구경북 교구장 | 지 공   | 충청전라 교구장 | 밀 공 정 |
| 서울경인 지회장 | 김은숙 | 부산경남 지회장 | 신인록 | 대구경북 지회장 | 권오남   | 충청전라 지회장 | 민순분   |



불교총지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 02)552-1080~3 전승 02)552-1082 //www.chongji.or.kr



# 사설

## 부처님 오신날의 각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섣신으로 몸을 나누시어 우리에게 지혜와 자비의 광명을 드리우고 열반에 드신지 2552년이 흘렀다. 이제 불교는 아시아의 종교를 벗어나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다. 이것은 불교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보편성을 지닌 진리란 것이 수많은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된 결과이다. 특히 과학적 사고와 합리성을 존중하는 유럽 선진국에서의 불교의 확산은 앞으로 인류가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교가 필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중생들의 탐진치는 날로 치성하고 이와 더불어 우리의 삶은 더욱 각박해져 가고 있다. 과학과 경제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생들이 아직도 불행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의 행복은 결코 물질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우리가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아무리 물질적 풍요를 추구해 봐야 행복은 쉽사리 오지 않는다. 백만대군을 격파하는 것보다 자기 마음 하나 잘 다스리는 것이 더욱 훌륭하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새삼 명심해야 한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광명이 더욱 확산되어 평화로운 세계가 되도록 우리 불자들이 앞장서야 한다.

사회가 이렇게 혼탁하고 살기 어려운 지금이말로 우리 불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황폐하고 삭막해져 가는 이 사회를 구하고 지구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자비와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불자들의 몫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각자의 마음을 다잡으면서 물욕을 다스리는 것은 물론이고 대승보살의 정신으로 이웃을 돌볼 줄 아는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야 한다. 이제 세계는 한 울타리이다. 무연대자 동체대비(無緣大慈, 同體大悲)의 마음으로 소외되고 억압받는 많은 이웃을 돌아보며 지금 이 순간, 바로 이웃을 불국토로 만들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부처님 오신날을 계기로 되새겨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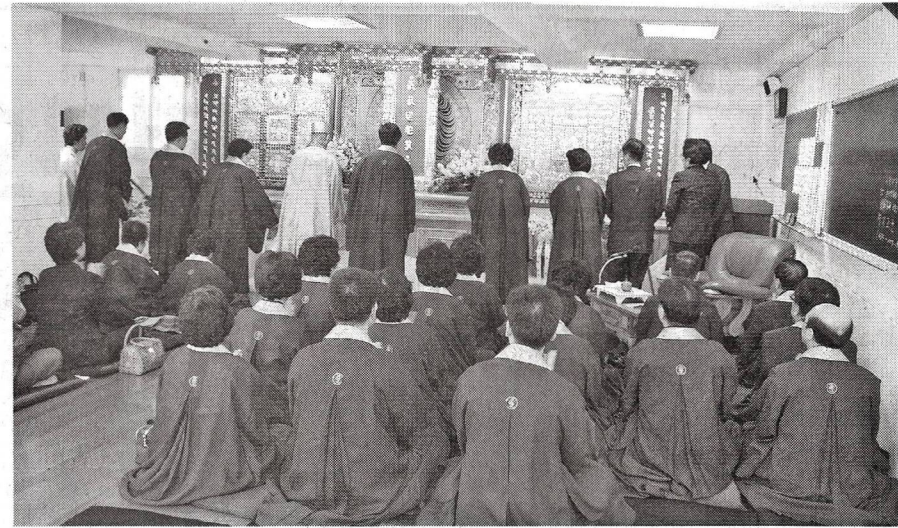
## 종단의 변화와 溫故而知新

변화의 의미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사물의 형태와 모양, 바탕, 성질 같은 것이 변하여 달라지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물질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의식(意識)과 사고방식, 절차, 제도, 의식(儀式) 등 비물질적인 것도 포함될 것이다. 그 변화에 있어서 전체가 될 수도 있고, 부분적인 것일 수도 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우도 있고 서서히 변화하는 일도 있다. 또 옛것을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것을 내세우는 것일 수도 있고 모방을 통해 변화하는 경우도 있다. 모방도 재창조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시도, 새로운 변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한 모방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방 속에서 또다른 발전이 있기 때문이다. 옛것에서 출발하여 더욱 새로운 것이 가미가 되어 발전을 거듭하는 변화도 있다. 소수의 특정집단에서 주도한 변화, 대다수가 원하는 변화, 위에서 아래로의 변화,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의 변화 등 그 경우의 수는 참으로 다양하다. 정답은 아니지만 아래에서 위로의 변화, 대다수가 원하는 변화, 옛것에서 하나 하나 고쳐나가는 변화.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대립과 갈등의 양극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변화의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한 변화는 좀처럼 기회가 오지 않는다. 실사 온다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오랜 세월을 필요로 한다. 아니 영원히 오지 않을 지도 모른다.

오늘날의 변화는 대부분 과거의 것을 부정하고 뒤엎는 것이 대체다. 즉 개혁이 정답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나 조직이나 단체가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원하지 않는 변화,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 모두가 원하는 변화라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변화는 어려운 것이다. 어렵다고 방치해둘 수는 없다. 어떤 형태로든 변화는 모색해야 한다. 변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면 온고지신(溫故而知新)을 강조하고 싶다. 과거 속에서 미래를 찾는 노력, 과거의 것과 공존하려는 자세, 즉 온고지신(溫故而知新). 과거의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갈때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그 토대 위에서 변화는 성공을 확신할 수 있다. 온고지신(溫故而知新)의 자세로 종단의 변화를 꾀하였으면 한다. 지금까지 행하여온 변화의 대부분은 바로 종조님께서 일거놓으신 것에서 출발했던 것이다. 한국불교사에서 최초로 양부만다라를 봉안한 것도 이미 종조님께서 설교하셨던 부분이다. 1972년 10월과 1973년 1월에 준제관음상(准提觀音像)과 현도만다라를 구상하셨던 것은 좋은 변화의 예라 할 수 있다. 생전에 수많은 사상(事相)과 제도, 의례를 창안하시고 폐지와 채택을 거듭하시며 변화를 꾀하였던 것이다. 종조님은 가셔서도 그 변화는 아직도 진행형에 있다. 종조님과 종단의 역사, 그 속에서 변화를 찾고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종조님과 종단 역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과거는 현재의 자산(資產)이요, 미래의 보고(寶庫)이다. 마땅히 과거를 연구하는 속에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새의 양날개와 수레의 두바퀴처럼.

# 시법사(施法寺) 만다라 불사 봉행

## “만다라 통해 신심 증장, 용맹정진 하길”



부평 시법사 만다라 불사가 4월 10일 봉행했다.

지난 해 춘계강공회에서 전국사원(원)이 4월 10일 만다라 불사를 봉행했다. 만다라 봉안불사를 발표한 이후 각 사원별로 만다라 봉안불사가 봉행되고 서울 경인교구 스승과 교도들이 동참 가운데 열린 이날 불사에서 효강

종령 예하는 “새 봄에 꽃이 피고 지는 것이 모두 부처님의 설법”이라며 “매사에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진 수행해 가노라면 세상의 어둠은 사라지고 부처님의 만다라 세상이 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령 예하는 이와함께 “육자대명왕 본존과 태장계, 금강계 양부만다라를 통해 신심을 발

하고 정진할 때 부처님의 가지력이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승 통리원장은 “대일경에는 하루 한 번 만다라를 진전하면 속세 죄업을 소멸할 수 있다고 설해져 있다”며 “정교하고 아름답게 조성된 만다라가 교도 여러분의 수행이 증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지종 총무부장 경원 정사의 집공으로 진행된 이날 불사에는 사감원장 지성 정사, 재무부장 시정 정사, 서울 경인 신정회 김은숙 회장, 이인성 총보통신원 회장, 시법사 이정숙 전 신정회장, 노진숙 회장 등이 참석했다.

## 부처님의 한량없는 무량공덕

### 관음사교도 서울대 의예과 합격

부산에 위치한 관음사(주교 정원신)는 교도의 외손자가 부처님의 무량공덕을 받아 서울대 의예과에 합격하여 사원은 축제분위기로 많은 보살들이 일심으로 용맹정진하고 있다. 관음사 장상순(무인생)보살의 외손자가 서울대학교 의예과에 우수 성적으로 입학하였다. 장상순 보살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관음사 도량에서 일심으로 불공하였다. 장상순 보살은 “부처님의 공덕은 지심으로 용맹정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서원당에 나와 불공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기쁜 일을 얻은 것 같다”며 “모든 것은 부처님께서 보내주시는 선물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부처님의 은혜갚기 위해 더더욱 용맹정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상순 보살은 관음사 보살들에게 감사의 보답으로 대중공양을 올리기도 하였다.

-관음사 총보 통신원 이선경

## “알뜰바자회로 화합 다져요”

### 정각사 바자회, 수익금 만다라 불사 보시



▷정각사 1층 강당서 열린 바자회.

부산 정각사(주교 범공) 1층강당에는 마치 정갈하고 구수한 맛이 풍기는 한 폭의 시골장터 같다. 오며 가며 쳐다보는 물품들이 옛집에 사무치는 듯한 인상과 더불어 정겨운 분위기가 고조하다.

정각사는 4월 13일 정각사 본당 1층 강당에서 작년 말부터 수집한 물품으로 바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바자회에는 신발부터 모자 넥타이 벨트 가방 의류 및 생활가전제품과 책들을 교도들이 부담없는 가격으로 깨끗하고 좋은 상품을 사실 수 있고 좋은 일에 동참 할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도록 관심을 유도 하였다.

## 총기화대경

4월15일자 신문, 성범죄자 위치 추적 장치 부착에 관한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220명중 172명(78.2%) 찬성, 27명(12.3%) 반대하였다. 찬성 이유는 ‘날로 흉악해지고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고, 반대 이유는 ‘인권침해가 지나치다’는 이유를 많이 내세웠다.

## 상습 성범죄자 ‘전자발찌’

조사 대상자중 여자 20명(71.4%)보다 남자 152명(79.2%)으로 찬성률이 더 높았다. 전자발찌는 성범죄자 발목에 채워져 성범죄자의 위치를 관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발찌가 범죄자와 5m 이상 떨어지면 관제센터에 경고 신호를 보낸다. 성범죄자 위치추적장치인 ‘전자 발찌’는 손목시계 모양을 하고 있으며 무게는 휴대폰과 비슷한 수준으로 100g 안팎이며 인권 문제를 감안해 남의 눈에 띄지 않는 발목에 차도록 설계돼 있다. 성폭행한 사범에 대해 검사의 청구가 있을 경우 적용되며 최장 5년까지 적용토록 하고 있다. 법률을 통해서라도 자라나는 청소년과 힘 약한 여자, 특히 자아관을 형성해 가는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다면 백백 환영한다. 세상이 왜 이렇게 험악해졌냐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밝게 만들 양을 하고 있으며 무게는 휴대폰과 비슷한 수준으로 100g 안팎이며 인권 문제를 감안해 남의 눈에 띄지 않는 발목에 차도록 설계돼 있다. 같은 성과를 기대해 본다.

- ▶ 5일부터 월초불공이 봉행됩니다.
- ▶ 12일 전국 각사원에서 부처님 오신날 연등법회가 봉행됩니다.
- ▶ 28일은 하반기 49일 불공 입재일입니다.

#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눴어요

2008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 까지

개천사 대상정 4.1 20,000	단음사 이규성 4.12 3,000	법천사 박말조 4.23 5,000	실지사 보생각 4.28 10,000	해정사 서령 4.28 10,000
개천사 무명씨 4.4 5,000	단음사 법연지 4.23 5,000	벽룡사 이봉희 4.10 10,000	운천사 김성숙 4.3 20,000	해정사 혜원정 4.28 10,000
개천사 무명씨 4.14 5,000	만보사 민순분 4.10 10,000	벽룡사 이희숙 4.22 10,000	운천사 박보경 4.23 10,000	해정사 오혜민 4.28 10,000
개천사 경 원 4.14 10,000	만보사 이종구 4.11 5,000	선림사 정복지 4.23 10,000	채신혜화 4.21 100,000	회음사 이재호 4.3 5,000
개천사 정법수 4.14 10,000	만보사 지성 4.14 10,000	선림사 심지장 4.23 10,000	정각사 김문수 4.12 10,000	회음사 강승훈 4.30 10,000
개천사 이희권 4.23 10,000	만보사 승효제 4.14 10,000	선림사 김자희 4.24 10,000	정각사 신인록 4.17 500,000	흥국사 밀공정 4.12 10,000
개천사 최필조 4.25 10,000	만보사 정덕순 4.25 5,000	성화사 우담파라 4.15 50,000	정각사 구정희 4.17 20,000	흥국사 여순애 4.12 10,000
관성사 황성녀 4.1 10,000	밀인사 신대식 4.15 5,000	성화사 김을임 4.21 10,000	정각사 변순개 4.18 5,000	김위택 4.8 10,000
관성사 김철우 4.2 10,000	밀인사 이해성 4.15 5,000	수인사 권오남 4.15 20,000	정각사 박수빈 4.23 10,000	임동수 4.17 10,000
관성사 정정희 4.10 5,000	밀인사 신동희 4.15 5,000	수인사 한애숙 4.29 30,000	정각사 자비회 4.30 30,000	오일록 4.18 10,000
관성사 박현숙 4.28 10,000	밀인사 신동의 4.15 5,000	수인사 공경원 4.29 10,000	정각사 조현필 4.30 5,000	이숙남 4.21 60,000
관성사 이해원 4.30 5,000	밀인사 이연수 4.25 10,000	수인사 김봉기 4.30 10,000	정심사 박옥란 4.25 20,000	정희연 4.24 10,000
기로원 총지사 4.23 10,000	밀인사 정정희 4.30 5,000	실보사 송희준 4.3 10,000	정심사 오윤보 4.30 5,000	무명씨 4.30 20,000
기로원 상지화 4.23 10,000	백월사 박인국 4.25 5,000	실보사 이순옥 4.15 5,000	지인사 허성동 4.16 20,000	이경순 4.30 10,000
기로원 불멸심 4.23 10,000	백월사 박인철 4.25 5,000	실보사 조순애 4.16 10,000	총지사 박홍렬 4.2 10,000	
기로원 법장화 4.23 10,000	백월사 류승태 4.25 20,000	실보사 송희준 4.24 10,000	총지사 최순전 4.10 177,000	
기로원 대자행 4.23 10,000	법천사 김정숙 4.1 5,000	실지사 송우섭 4.2 5,000	총지사 이인성 4.25 30,000	
기로원 대 관 4.23 10,000	법천사 김정숙 4.23 5,000	실지사 박병성 4.16 5,000	통리원 지정 4.23 20,000	
기로원 수증원 4.23 10,000	법천사 시정 4.23 10,000	실지사 이화수 4.21 10,000	해정사 박종석 4.7 20,000	
기로원 자선화 4.23 10,000	법천사 원만원 4.23 10,000	실지사 정경자 4.28 5,000	해정사 최영례 4.14 10,000	

###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한 기여입니다.

###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정명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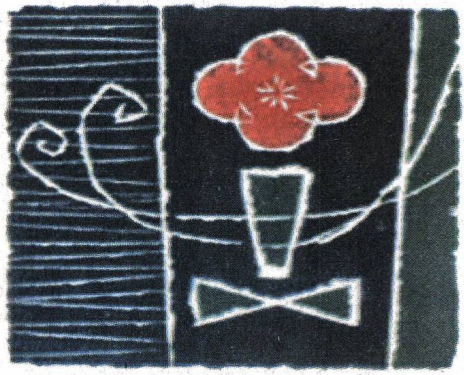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552-1083, 3452-7485

◇ 위 금액은 전액 불우교도 가정 돕기에 사용됩니다.



풍경소리

멀리 가는 향기



꽃 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못해도 덕행을 쌓은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멀리 멀리 시방 세계 퍼진다.

-아함경(阿含經)

오줌 누는 자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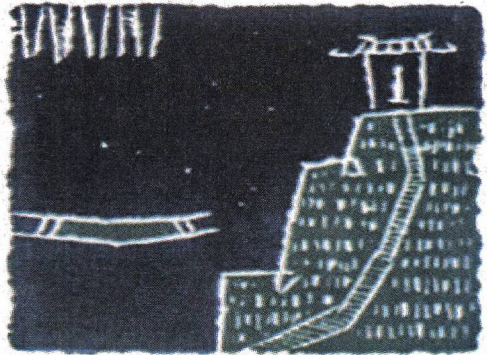


농사에 경험이 없는 젊은이가 흙 속에 박힌 자갈을 전부 주워낼 요량으로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말없이 지켜보던 동네 노인이 한 마디를 던졌습니다. "젊은이, 자갈이 오줌을 누는 법이라네. 자갈은 흙 속에 물기를 머금고 있다가 흙이 뜨거워지면 물을 내뿜어 수분을 조절해 주고, 땅에 숨구멍을 내주어 결과적으로 농사에 이로운데."

우리 삶에도 이런 자갈이 수 없이 박혀있겠지요. 그런데 자갈 탓을 하느라 정작 씨앗을 뿌릴 시기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 이명선 / 수필가



마음의 평화를 위한다면

조금 놓아 버리면 조금의 평화가 올 것이다. 크게 놓아 버리면 큰 평화를 얻을 것이다. 만일 완전히 놓아 버리면 완전한 평화와 자유를 얻을 것이다. 그리하여 세상을 상대로 한 그대의 싸움은 끝을 보게 될 것이다.

-아짤 차 선사 (태국 승려)의 말씀 중에서-

원정대성사와 함께 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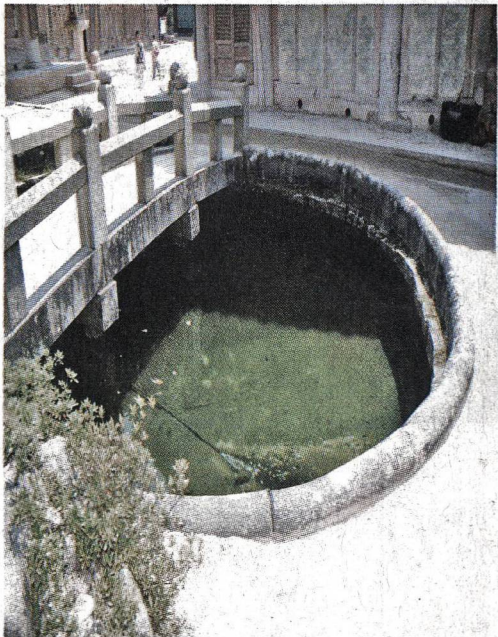
VISUAL광고 ~천수경편 제 27화~

A multi-panel comic strip featuring a purple insect character and a man in a suit. The insect character is a 'stone beetle' (석동구리) that has become a 'visual advertisement' for a 'peace' (평화) campaign. The man in the suit is a 'peace' (평화) activist who is trying to convince the insect character to help with the campaign. The comic includes various scenes of the insect character being used in different ways, such as being used as a 'visual advertisement' for a 'peace' (평화) campaign, being used as a 'visual advertisement' for a 'peace' (평화) campaign, and being used as a 'visual advertisement' for a 'peace' (평화) campaign.

이달의 명상

"부처는 내 안의 불성"

일타 스님께서는 용이심도 퇴굴심도 내지 않는 마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용이심이란 이 까짓거 나도 할 수 있다는 아만, 퇴굴심이란 내가 감히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던 말인가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버리고 조금씩 해나가는 것이야말로 부처에게 다가가고 스스로 부처를 이루는 길일 것입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안되는 일이 있다면 시간을 내어 한번은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불보살님은 틀림없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나를 속일 불보살은 없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부처란 다름이 아니라 자기자신 안에 있는 불성입니다.



-일타스님의 인연 이야기

웰빙시대 우리집 건강지킴이 신비의 황토손

선조들의 생활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신비의 흙이 바로 황토입니다.

땅의 약 10%를 덮고 있는 황토는 다량의 탄산칼슘을 가지고 있다. 이 성분은 황토를 잘 부서지지 않게 하는 점력을 가지며 이외에도 실리카 알루미나, 마그네슘, 철분, 나트륨, 칼라 등의 구성성분을 갖는데 이러한 성분비와 다양한 효소들로 조성된 황토는 동식물의 성장에 필수적인 원적외선을 다량 방출하므로 살아 있는 생명체라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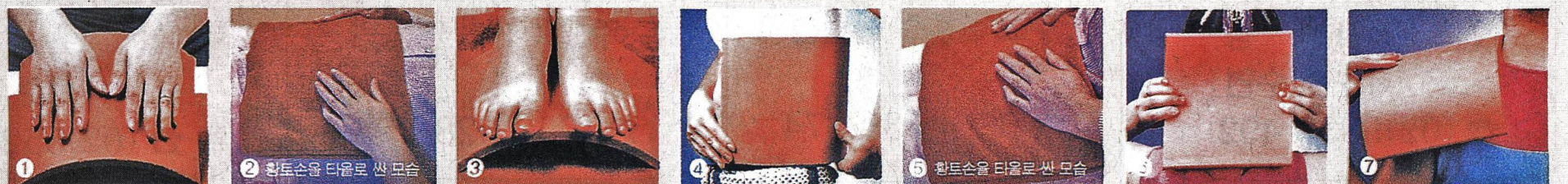


▶황토이야기

황토의 가장 근본적인 효능은 황토에서 방출되는 원적외선이다. 황토에 열을 가하면 흙에서 내뿜는 복사열인 바이오 원적외선이 인체에 깊숙이 침투하여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는 세균 작용을 약화시키고 혈액순환을 돕거나 세포생성을 촉진시킨다. 특히 황토는 중금속을 분리시키며 습도를 조절하고 전자파를 차단하며 항균, 방충, 생리 활성, 제독력 등의 효능이 있어 노화방지나 건강에 효과가 있다. 황토를 축조된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부엌일을 하던 우리 옛어르신들에게 유방암, 자궁암 등이 없었던 것은 바로 이 황토에서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부인병을 예방하는 효능 때문이었으며, 이는 옛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본초강목과 향약집성방

중국과 우리나라의 한방 의학서인 본초강목과 향약집성방에는 복용간(황토)에 대해서 중요시 하고 있다. 복용간은 아궁이 속의 흙을 말하며 이는 부인의 어지러움이나 토혈, 중풍 등의 치료제로 쓰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산해경에도 황토는 대체로 질병치료에 효험을 보는 것으로 묘사 되어 있다.



1 손의 혈액순환을 위해 황토손위에 올려놓은 모습 2 번비가 심하신 분은 등근면을 배 안쪽으로 해서 데워주는 모습 3 무릎, 발의 피로를 풀기 위한 모습 의자에 걸쳐 앉거나 가볍게 올려 놓는다. 4 옆구리 결림 등에 등근면을 사용하는 모습 5 무릎 등의 관절 부위에 사용한 모습 6 머리가 무겁거나 뒷 목줄기가 당길 때 사용한 모습 7 어깨가 결리거나 무리한 운동을 하였을 때 사용모습 8 허리가 결리거나 당길때 사용모습(엉치통 등)

문의

대구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612 김미성 보살 ☎ 011-514-1094, 053)765-9588 대구 개천사 : 대구 중구 봉산동 230-12 ☎ 053-425-7910



세계속의 불교 ⑩

남방불교(Theravada Buddh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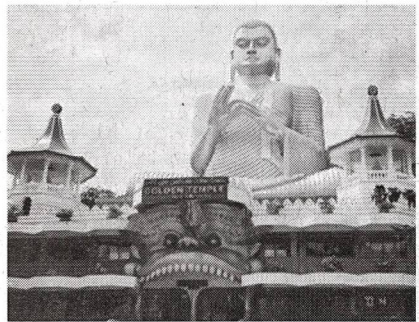
남방불교는 테라바다(Therava-da), 즉 상좌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흔히 상좌불교 또는 상좌부불교라고도 한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불교를 가리키며, 초기 불교승단의 전통이 상당 부분 이어져 오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비구니 교단은 11세기경에 그 맥이 끊긴 채로 단절되었다. 1998년도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불교 신자는 6%이고, 그 중에서 상좌부불교를 따르는 불교도가 38%를 차지하고 있다.

1. 스리랑카

인도 아쇼카 왕의 전법사가 불교를 스리랑카에 이식시킨 이래로 변함없이 불교는 스리랑카의 중심 종교였다.

일찍이 아쇼카 왕은 아들 마힌다(Mahinda) 비구를 스리랑카에 보내서 불법을 전수하였으며, 딸이었던 상가미타(San hamitta-) 비구니를 통해서 붓다가 깨달음을 얻었던 바로 그 자리의 보리수 한 가지를 전해 주었다고 한다.

그 보리수는 지금도 아누라다푸라에서 생명을 잇고 있는데 거국적인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전 세계 불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신성한 순례지이기도 하다.



▷스리랑카 담골라 황금시원

마힌다 장로는 데바나피야 티사 왕(기원전 250~210년 재위)의 의호를 받아 수도였던 아누라다푸라에 대사(大寺)를 세웠는데, 이는 후일 정통적인 대사파의 근거가 되었다.

기원전 1세기경 무외산사(無畏山寺)가 세워져 또 다른 일파를 이루었는데, 이로써 교단은 대사파와 무외산사파로 양분되었다. 두 파는 각각 보수와 진보교단으로 대립하였고, 무외산사파가 대승불교와 밀교를 수용함으로써 그 대립은 극심해졌다. 이러한 대립 양상은 오래도록 지속되다가 12세기에서야 대사파의 승리로 일단락되어 교단이 정비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다.

스리랑카불교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팔리경전의 전승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대사파에서는 기원전 1세기 경에 이미 불전을 정비하기 시작했는데, 경행경는 3장뿐 아니라 장외불전까지도 편찬하여 경전연구의 깊이를 더하였다.

11세기 초 스리랑카를 점령한 힌두교 세력의 탄압으로 인하여 한때 불교교단은 위축되었고, 17세기 중반 이후에는 네덜란드와 영국 등의 외세로 인해서 불교세력이 한껏 약화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립을 회복한 후 불교교단은 더욱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스리랑카는 명실공히 남방불교의 핵심 성지로서 인정받고 있으며, 전 세계 불교도의 순례지로서도 각광받고 있다.

스리랑카에서는 전 인구의 67% 정도가 불교신자로 알려져 있으며, 그 대부분은 싱할라족이다.

2. 미얀마

인도의 동쪽 국경을 잇대고 자리한 미얀마는 스리랑카 못지않은 오랜 불교역사를 가지고 있다. 흔히 '미얀마에 태어나는 것은 곧 불교도가 되는 것'이라 말할 정도로 미얀마의 불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만큼 뿌리 깊은 종교라 할 것이다.

미얀마의 불교는 정치세력의 부침과 운명을 같이하였는데, 3~9세기에 는 부파와 대승불교가 혼재되어 있다가, 그 후 밀교와 힌두교를 비롯한 여러 토착종교가 공존하는 시기를 거쳤다.

11세기 중엽에, 미얀마의 북부 파간을 중심으로 세워진 통일국가의 왕 아노라타(Anawrahta)가 스리랑카의 대사파 계통의 상좌부불교를 수용했는데, 그 후로 상좌부의 맥이 끊기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파간시대 이래로 정치적 지배세력

과 불교승단의 우호적 관계는 계속 유지되어 왔으나, 19세기 말 영국의 침입으로 인하여 왕정이 무너졌고 그 후 정치적인 혼란을 거듭하면서 불교승단도 그 영향력이 약화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근년에 들어서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미얀마 정부가 불교의 이상실현을 표방하면서 적극 후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3. 타이

현재, 타이(태국)의 불교를 한마디로 특징짓는다면 '국민 모두가 승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불교가 생활 속 깊이 스며 있다는 점일 것이다.

타이에서는 신체 건강한 자로서 20세가 넘으면 누구나 승려가 되도록 추적을 받을 정도로 온 국민의 불심이 깊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교단 통치법'이라는 실정법을 통해서 불교교단의 활동을 규제하고 있다.



▷태국 외론 사원

타이 땅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대승불교시대일 것이라고 추측되지만 구체적인 사료는 전하지 않는다. 다만 13세기 중엽에 타이 민족 최초의 통일왕조였던 스코타이 왕조에 문자의 발명과 더불어 스리랑카의 상좌부불교를 받아들였다고 알려져 있다.

그 후 14세기부터 타이를 지배했던 아우타야 왕조가 불교의 중흥을 위해 전력하였고, 1783년에 세워진 방콕 왕조의 후원으로 더욱 융성하게 되었다.

특히 라마 4세(1851~1868년 재위)는 사회적 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불교교단을 더욱 엄정하게 개혁하고 계율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 때 왕의 정책을 따랐던 정

법파(正法派)와 그렇지 않았던 대중파(大衆派)로 교단이 이분되었다.

정법파는 왕실을 비롯한 지배계층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계율을 엄격히 준수하지만, 대중파는 계율이 그리 엄격하지 않다는 차이가 있을 뿐, 두 파 사이의 교의상 차이는 거의 없다.

현재, 타이의 사원들 중에서 90% 이상이 대중파에 속한다.

4. 캄보디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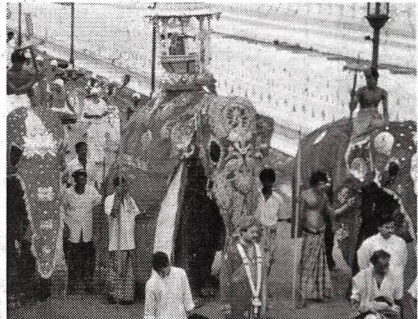
타이의 상좌부불교가 전해진 캄보디아의 불교 또한 타이와 크게 다를 바 없으나, 남방의 다른 나라보다는 힌두교와 대승불교의 세력이 좀더 오래 번성했다는 점이 다르다.

크메르 왕조는 자야바르만 2세(802~869년 재위) 이후부터 9~10세기경의 최성기에 이르기까지 수도 앙코르에 수많은 사원들을 건립했는데, 그 거대한 규모와 정교한 예술성은 오늘날에도 경이로운 세계 유산 중 하나로서 많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

13세기경 서북쪽에서 타이인의 세력이 발흥하여 영토를 침입하기 시작하자, 크메르 왕조는 쇠퇴하기 시작했다. 그 후 유입되기 시작한 상좌부불교는 현재까지 캄보디아의 중심 사상이어서 국민을 이끌어 왔다.

다만 캄보디아에 대한 타이의 정치적 영향과 압박이 끊이지 않은 만큼, 타이불교교단의 영향력 또한 지속되어 왔다는 것이 캄보디아불교의 한 성격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1930년에는 타이불교교단의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뜻으로 프놈펜에 불교연구소를 건립하기도 했다.



▷부처님 치아사리 이운행사

현재, 전 국민의 85% 정도가 불교도로서 신앙생활에 충실하고 있다.

총기동의보감

생리불순



조성화 원장 (여성 美 한의원)

건강한 여성에게 있어서 생리는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생리의 주기와 양이 일정하지 않고 덩어리가 동반되거나 생리시 냄새가 동반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생리불순이라고 한다.

즉 정상적인 생리는 주기의 경우 28-30일, 기간은 4-5일에서 일주일 정도를 하며 보통 2,3일째가 양이 많고 약간의 덩어리를 동반하게 된다. 그러나 생리주기의 경우 반드시 28-30주기가 아니라도 25-45일까지는 같은 주기로 반복될 경우 정상생리의 범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리불순이라 할 경우 생리주기에만 이상이 생기는 경우를 생각하나 배란기를 지나 생리가 나올때까지와 생리기간중에 나타나는 증상과 덩어리, 냄새, 색의 이상을 모두 생리불순의 범주로 볼 수 있습니다.

생리불순에는 생리기간의 이상에 따른 정상생리기 이전에 출혈이 시작되는 빠른생리인 경조(經早), 생리주기 이후 며칠씩 늦어져서 나타나는 늦은생리인 경지(經遲)로 구분합니다.

생리량의 이상에 따른 경우에는 출혈량이 소량인 과소월경(過少月經),

정상보다 다량으로 출혈되는 과다월경(過多月經)으로 분류합니다.

치료의 경우 과다월경과 빠른월경의 경우 주로 인체내에 화(火)기운에 의한 부분이며 간, 신장을 비롯한 자궁이 약해 상대적으로 위로 화(火)기운이 상승하는 것이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궁을 비롯한 생식기능을 보강해 위로 치솟는 기운을 안정시키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와 분노 등으로 화(火)가 상승될 경우에는 간과 심장, 폐의 열을 다스리는 치료를 통해서 생리를 개선하게 됩니다.

과소월경과 늦은 월경의 경우 간장, 비장, 신장이 허약하거나 자궁에 기와 혈이 멎어 있거나 담습(痰濕)과 차가운 기운이 막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서 자궁내의 어혈과 합쳐져 생리의 원활한 배설을 막게 됩니다. 그러므로 약해진 기능을 보강해 올체된 어혈과 담습들을 제거하고 자궁과 골반내의 순환을 회복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월경불순의 예방법

1. 생리전후나 기간동안에는 가능한 술, 담배, 카페인 등을 삼간다.
2. 당귀, 쑥, 익모초 등을 등분해 대추와 감초를 넣고 달여 꾸준히 차처럼 복용한다. 각각을 환으로 만들어 복용해도 좋다.
3. 생리주기가 늦거나 양이 적고 아랫배가 찬 경우 흡상이나 인삼을 달여 복용한다.
4. 평소 반신욕과 좌훈, 찜질 등으로 아랫배를 따뜻하게 보온한다.
5. 적당한 운동과 요가, 단전호흡 등으로 골반 및 전신순환을 돕는다.

죽비소리

경전에, "신주神呪(진언眞言)를 외우는 것은, 음생에 지은 업은 쉽게 다스릴 수 있어 자기 힘으로도 고칠 수 있지만 전생에 지은 업은 지워버리기가 어려우므로 반드시 신비한 힘을 빌려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서산 대사 <선가귀감>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관성사

주교: 전수 정법계  
☎ (02)736-0950

밀인사

주교: 정사법 등 전수 인덕심  
☎ (02)762-1412

벽룡사

주교: 정사원 당 전수 묘심해  
☎ (02)889-0211

법천사

주교: 정사시 정 전수 원만원  
☎ (031)751-8685

시법사

주교: 전수 환수원  
☎ (032)522-7684

실지사

주교: 정사록 경 전수 법수연  
☎ (02)983-1492

정심사

주교: 전수 진일심  
☎ (02)433-0374

지인사

주교: 전수 연등원  
☎ (032)528-2742

총지사

주교: 전수 선도원 정사법 일 전수 자행정  
☎ (02)552-1080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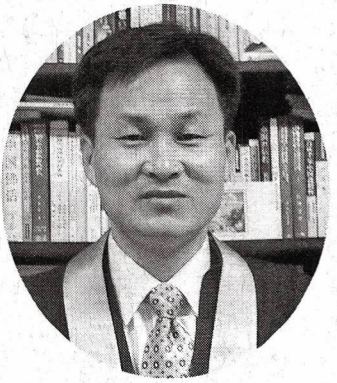
서울·경인교구 신정희

서울·경인교구 일동



부처님 오신날  
특집 법문

“믿음은 나의 씨앗, 지혜는 나의 쟁기”



화령 정사  
중앙교육원장·철학박사

부처님의 발걸음

부처님께서 마가다의 예카사라라는 마을에 계실 때였습니다. 그 마을은 어떤 바라문의 소유였는데 마침 곡식을 심을 때라 바라문은 마을 사람들을 지휘하면서 곡식 심을 준비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그 날 아침에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려고 그 집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마침 그 바라문은 마을의 일꾼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고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탁발을 위해 서 계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문이며, 나는 스스로 밭을 갈고 씨를 뿌

려 양식을 얻고 있소. 당신도 스스로 밭을 갈고 씨를 뿌려 양식을 얻는 것이 어떻겠소?”  
이마 이 바라문은 부처님께서 아무 것도 하는 일이 없이 탁발하면서 먹고먹는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문이며,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려 양식을 얻소.”

그 말을 들은 바라문은 뜻밖의 말씀에 의아해 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물론이고 그 누구도 당신이 밭을 갈고 씨를 뿌려 양식을 얻는 것을 보지 못했소. 도대체 당신의 쟁기는 어디 있소? 소는 어디에 있으며 당신은 무슨 씨를 뿌린다는 것이오?”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계승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믿음은 나의 씨앗이요, 지혜는 나의 쟁기이며,

신구의 악업을 제어하는 것은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다.

정진은 내가 부리는 소로서 나이가 물러서지 않으며,

행한 일은 슬퍼하지 않으며 나를 편안한 마음으로 데려 간다.

나는 이와 같이 밭을 갈고 이와 같이 씨를 뿌려

감로의 열매를 거둔다.

바라문은 그 뜻을 이해하고 부처님께 이렇

게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서 뛰어난 농부입니다. 부처님께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시는 것은 불사(不死)의 열매를 거두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부처님, 이 음식을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그 바라문은 부처님께 음식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그 음식을 물리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계승을 설하고 음식을 얻지는 않는다. 바라문이며, 그와 같은 일은 지견(知見)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바라문이며, 깨달은 사람은 계승을 읊은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바라문이며, 깨달은 사람은 오직 진리 가운데에 사는 것이며 그것이 각자(覺者)의 생활이다.

바라문이며, 그러므로 온갖 번뇌에 얽혀 후회가 따르는 행동을 하지 말고 성자에 대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음식을 공양하는 것이 좋으리라. 이와 같이 음식을 공양하면 공덕을 원하는 사람의 복진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그 바라문은 부처님께 귀의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불교의 수행자로서의 자세에 대한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것은 밭을 갈고 씨를 뿌려 양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불교는 인간의 황폐한 마음을 갈아 거기에 지혜의 씨를 뿌리고 정진으로서 번뇌의 잡초를 제거하여 마음의 양식을 마련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의 수행자는 놀고 먹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자는 인간의 지혜를 개발하여 진정으로 행복해 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수행자의 농사이며 양식을 얻는 방법입니다. 농부는 농부대로, 수행자는 수행자대로 각자의 역할이 틀리기 때문에 농사짓는 방법 또한 다른 것입니다.

또 부처님께서서는 계승을 설한 댓가로 음식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수행자는 대가를 바라고 법을 설해서는 안 됩니다. 탐·진·치에 가려 눈을 못 뜬 자를 위하여 오직 지비로써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가로서 올리는 음식은 받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그게 그거 아니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가르침을 전하는 것과 돈을 벌기 위해 누구를 가르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서는 대가성의 공양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성자를 공양하는 것은 공양하는 사람의 복진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남방불교에서는 공양하는 사람이 도리어 공양을 받는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양을 받아주셔서 나로 하여금 복을 짓게 해 주시니 고맙다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공양하는 사람도 이러한 마음으로 공양을 해야 그것이 참된 공양입니다. 보시를 통하여 나의 욕심을 버리고 삼보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보시한 것에 이자가 붙어서 더 많이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

고 보시를 해서는 공덕이 없습니다.

그런 보시를 해놓고는 애꿎은 부처님만 탓하다가 퇴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공양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발걸음의 비유를 통해서 수행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를 이루겠다는 믿음, 삼보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뿌릴 씨앗을 가지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없으면 밭을 갈 쟁기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넓은 들판을 호미 들고 갈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제풀에 지치가 쉽습니다. 지혜를 가꾸지 못하고 우둔하고 미련하게 토굴 파고 들어앉아 있어야 시간만 낭비할 따름입니다.

그러다가 지치니까 막행막식을 하기도 합니다. 회의와 허무에 빠져서 그런 것이지요. 이런 것은 다 지혜의 쟁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가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바짝 열을 내서 하다가도 얼마 못 가 퇴전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신·구·의의 악업을 제어하지 않으면 마음의 밭에 잡초가 무성해집니다. 번뇌가 많이진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정진이라는 것도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진은 소라고 비유했듯이 정진이 없으면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갖추고 불교의 수행자는 마음의 밭을 가는 것입니다.

◇ 검은 업과 흰 업

용모가 뛰어난 가미니는 이른 아침 부처님을 뵈고 여쭙었다.

“부처님이며, 바라문은 스스로 잘난 체하면서 하늘을 삼갑니다. 어떤 중생이 목숨을 마치면 바라문은 마음대로 죽은 이를 천상에 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원컨대 법의 주인이신 부처님께서도 중생들이 목숨을 마치거든 천상에 태어나게 해 주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미니여, 내가 너에게 물을 테니 이는 대로 대답하여라. 어떤 사람이 게을러서 정진하지 않고 계다가 산 목숨을 죽이며,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사음을 행하며, 거짓말을 하고, 그릇된 소견을 가지는 등 온갖 나쁜 업을 지으면서 살았다고 하자. 그가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당신은 게을러 정진하지 않고 그러면서 악업만을 행했습니다. 당신은 그 인연으로 목숨이 다한 뒤에는 반드시 천상에 태어나십시오’라고 했다고 하자. 가미니여, 이렇게 여러 사람이 축원했다고 해서 그가 천상에 태어날 수 있겠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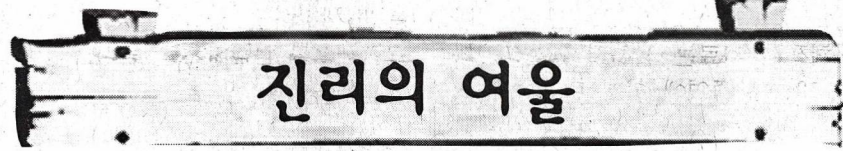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게으른 그가, 더구나 온갖 나쁜 업을 지은 그가 축원을 받았다고 해서 천상에 태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비유를 들면, 저쪽에 깊은 못이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크고 무거운 돌을 던져 넣었다. 마을 사람들이 못가에 모여서 ‘돌아, 떠올라라’ 하고 축원을 하였다. 그 크고 무거

운 돌이 축원을 했다고 해서 그들의 소원대로 떠오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 그가 천상에 태어날 수 없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지이다. 왜냐하면, 나쁜 업은 검은 것이어서 그 깊음으로 저절로 밑으로 내려가 반드시 나쁜 곳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정진하면서 묘한 법을 실행하고 온갖 착한 업을 닦는다고 하자. 그가 목숨을 마칠

러나 그 마음의 업식만은 항상 믿음에 싸이고 정진과 보시와 지혜에 싸여 저절로 위로 올라가 좋은 곳에 나는 것이다. 가미니여, 산 목숨을 죽이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으며, 사음과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투한 소견에서 벗어나는 좋은 길이 있다. 이른바 팔정도 가 위로 오르는 길이며 좋은 곳으로 가는 길이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가미니와 여러 비구들이



진리의 여울

이 다들 기뻐하면서 받들어 행하였다. (중아함 가미니경)

◇ 청정한 계행의 과보

아자타삿투왕이 다시 부처님께 여쭙었다.  
“부처님, 눈앞의 과보보다 더 뛰어난 것을 말씀해주십시오.”

“어떤 귀족의 가장이나 자제나 혹은 천민의 자제들이 여래의 가르침을 듣고 믿음을 내어 장애 많은 세속 생활을 떠나 출가하여 사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청정한 계행을 닦고 정진하여 조그만 허물도 두려워하고 깨끗한 몸과 말과 생각을 지니며, 모든 감각의 문을 잘 보호하고 바른 생각과 바른 지혜를 두루 갖추게 될 것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계행을 갖춘 것인가.

살생을 하지 않고 모든 생물을 가엾이 여기며,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고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생각도 내지 않으며, 떳떳하지 못한 음행을 하지 않고 밝고 깨끗한 행동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한 말만 하고 이간질을 하지 않고 화합하고 친밀한 말을 하며, 거친 말을 하지 않고 누구나 들으면 기뻐하는 말을 하고 부질없는 말을 하지 않고 도리와 교법에 맞는 말을 합니다.

하루에 한 번 먹고 연극이나 노래, 춤, 오락 등의 유희장에 가지 않으며, 몸을 푼다발이나 향수로 치장하지 않고 높고 큰 침상이나 의자를 사용하지 않소. 금, 은 같은 귀금속과 곡식을 저장해 놓는 일도 없고 부인이나 소녀 또는 남녀의 노예를 받아 부리는 일이 없으며, 코끼리, 말, 소, 산양 등의 가축이나 토지 전답을 받는 일도 없소.

공사간의 심부름이나 중매 혹은 팔고 사는 행위를 하지 않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모든 그릇된 행위를 하지 않소.

이것은 또한 비구계의 일부가 되는 것이요. 비구가 이와 같은 계행을 두루 갖추면 이 계행의 위력으로 어느 곳에 갈지라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마치 사방의 적을 정복한 위력 있는 왕은 어디를 가나 두려울 것이 없는 것과 같소. 비구가 청정한 계행을 갖추면 마음속으로 티없이 깨끗한 평안을 누리게 되니 이것이 비구가 계행을 구족한 현세의 과보인 것이요.”

(남전 장부 사문과경)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만 보 사

주교 : 정사 지 성

전수 승효제

☎ (042)255-7919

백 월 사

주교 : 정사 범 우

전수 인지심

☎ (042)527-5470

법 황 사

주교 : 정사 승 원

전수 묘원화

☎ (062)676-0744

혜 정 사

주교 : 정사 서 령

전수 혜원정

☎ (043)256-38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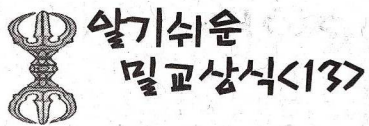
흥 국 사

주교 : 전수 밀공정

☎ (063)224-4358

충청 · 전라교구 일동





### 삼밀(三密)과 삼밀수행(三密修行)②

#### 의밀과 사종만다라

의밀은 수행자 자신의 의식을 관상(觀想)하는 것으로서 4종 만다라에 의하여 수행자의 의식을 지혜로 전환하는 것이다. 4종 만다라는 대(大)만다라·삼매야(三昧耶)만다라·법(法)만다라·갈마(羯磨)만다라의 4종 만다라이다. 이것은 법신불인 대일여래비로자나부처님의 법신을 관념상 네 가지의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대만다라는 우주만유의 전체형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모든 불·보살의 상호구족(相好具足)의 신상(身相)으로써 표현된다. 쉽게 말하면 불상이나 불화 등에 나타난 형상으로 표현된다.

삼매야만다라는 우주만유의 개개의 형상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모든 불·보살의 인계(印契)와 이들이 지니는 기장(器仗)·지물(持物) 등으로 표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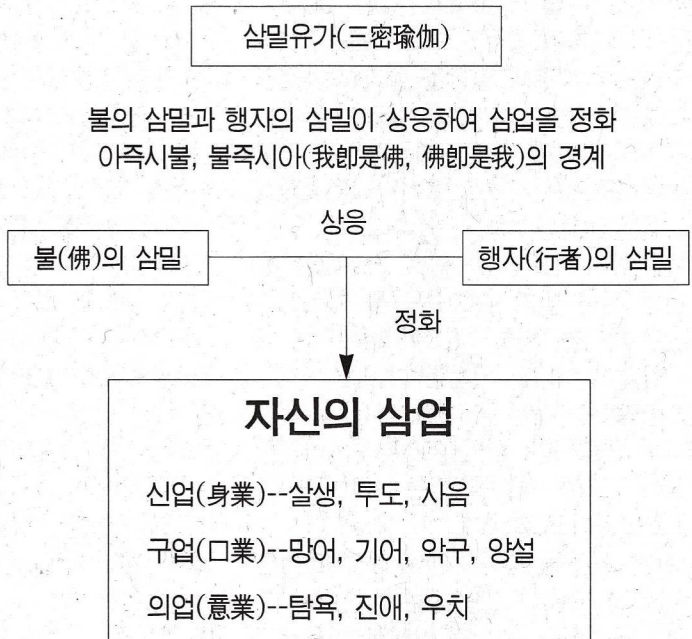
법만다라는 일체의 언어·음성·문자·명칭 등을 의미하며 불·보살의 명호나 불·보살을 상징하는 종자자 혹은 율륜이나 연화 등으로 표현된다.

갈마만다라는 일체 사물의 활동·작용을 의미하며 불·보살의 위(威儀)와 작용을 통하여 나타난다.

불·보살의 자비나 원력 등 여러 가지 중생을 위한 활동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4종 만다라를 관함으로써 수행자의 의업이 제존(諸尊)의 의밀과 상응하여 정화된다.

무상삼밀은 수인이나 진언, 본존의 관상(觀想)과 같은 드러난 형식이 아니라 중생의 온갖 신·구·의의 모든

작용 그대로가 삼밀이라고 보는 것이다.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모든 형상과 소리와 마음의 작용이 그대로 법신이요, 법계이기 때문이다. 유상삼밀에 의하여 중생의 삼밀 위에 불의 삼밀이 더하여 갖추어지는 것이 삼밀가지(三密加持)이다. 즉, 중생의 행에 불의 자비가 응하고 행자의 신상에 의하여 불이 자신에게 현현(顯現; 나타나는 것)하는 것을 체득하는 것이 가지(加持)인데 그것이 신·구·의의 유상삼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삼밀가지이다.



삼밀가지에 의하여 중생의 삼밀과 불의 삼밀이 상응하여 응화되는 것을 삼밀상응(三密相應) 혹은 삼밀유가(三密瑜伽)라고 한다.

이렇게 하여 행자와 본존이 일체로 되어 '아즉시불, 불즉시아(我即是佛, 佛即是我)' 내가 곧 부처이고 부처가 곧 나인 경계를 이루면 이 몸 그대로 부처가 되는데 이것이 밀교에서 궁극의 이상으로 삼는 즉신성불(即身成佛)이다.

이처럼 밀교수행자의 삼업이 본존의 삼밀에 가지되어 중생의 삼업과 불의 삼밀이 일아아입(入我我入)함으로써 삼업이 정화되고 성불에 이르기 위한 수행법이 삼밀수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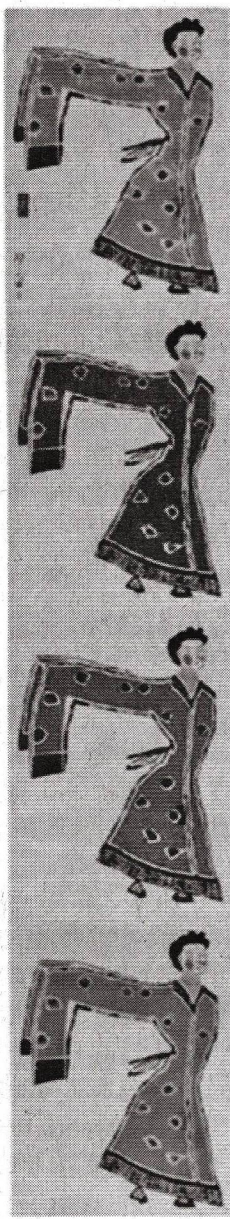
이것을 간단히 삼밀관 혹은 삼밀행이라고도 하고 삼밀관행법이라고도 한다. 밀교의 모든 수행법은 이러한 삼밀론과 삼밀수행에 기초를 두고 전개된다.

그렇기 때문에 삼밀에 대한 이해와 삼밀행은 밀교의 기본이고 모든 수행의 기초이며 즉신성불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 화령(중앙교육원장/철학박사)

### 밀교설화 <22>

## 네명의 아내



네 명의 아내를 둔 남자가 있었다. 그러나 넷째에게는 별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늘 허너 취급을 받았으며 온갖 굶은 일만을 도맡아 했지만 그녀는 삶은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의 뜻에 순종하기만 했다.

어느 때 그가 머나먼 나라로 떠나게 되어 넷째에게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넷째는 냉정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지만 둘째에게 같이 가자고 했지만 둘째 역시 거절했습니다. 셋째도 안 따라가는데 자기가 왜 가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넷째에게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넷째는 말했습니다.

"성문 밖까지 배웅해 줄 순 있지만 그러나 같이 갈 순 없습니다."

그는 넷째에게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넷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넷째부인만을 데리고 머나먼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여기에서 '머나먼 나라'는 저승길을 말합니다. 그리고 '넷째부인'은 이 육체를 뜻합니다. 우리 육체를 나 자신이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찾아오면 우리 이 육체를 버리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넷째부인'은 재물입니다. 우리 재물을 모으기 위하여 별짓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은 재물도 죽을

뻔 가져가지 못합니다.

'셋째부인'은 일가친척, 친구들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어울려 신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되면 그들은 화장터까지 나를 따라와 줍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얼마 후면 나를 잊어버릴 것입니다.

'넷째부인'은 마음입니다. 살아 있는 동안 우리 마음에 대하여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을 때 나를 따라오는 것은 오직 이 '마음'뿐입니다. 그러므로 살아 생전에 '마음'을 공부할 것을 게을리 하면 안 됩니다. 저 영혼의 암흑 속을 헤매고 싶지 않거든 살아 있는 지금 이 마음을 정화 시켜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재물의 축적도, 명예도, 출세도 권력도 아닌 바로 이 '마음 닦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온갖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이 '마음 닦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 사람, 그는 임종의 순간이 오면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꿈없이 마음 닦는 공부가 왜 필요하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앞과 뒤, 분별이 안되는 철학같은 어둠 속을 헤매인다는 것은 상상만해도 두려움이 앞선다.... 시시각각 변하는 마음의 고풍을 주인인 내가 단단히 잡고 선업을 짓는 일에 주저함이 없어야겠다."

- 최영해

### 세상사는 이야기

세상이 온통 봄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 내 마음도 봄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 아파트 화단에 하얗게 핀 꽃사과 나무는 우리들에게 화려한 꽃 비를 내려 주고 예쁜 모습으로 사라져간 봄꽃의 뒤를 힘차게 따라 가고 있다. 화단 한 쪽에는 연산홍이 수줍어 빨개진 얼굴로 나를 살며시 쳐다보고 있다.

난 그냥 집안에만 있을 수 없어 밖으로 나왔다. 화단에는 우리들과 친한 풀꽃들이 지천으로 피었다. 그 옆에 앉아 뽕이 꽃, 민들레 꽃, 제비꽃과 이름 모를 풀꽃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았다. 어쩌면 그렇게 앙증맞고 귀여울까? 행복찬 눈으로 보면 이 세상 만물이 모두 행복해 보인다.

꽃을 따라 이곳 저곳을 가보니 한 곳에는 제비꽃이 온 화단을 뒤덮었다. 자세히 보니 우리가 늘 보던 제비꽃이 아니었다. 꽃은 엄청 손뚱만큼 크고 색깔도 정이 가지 않는 그런 꽃이다. 잎도 많이 크다. 내가 늘 보던 작고 소박한 꽃이 아니었다. 이 화단에는 다른 꽃은 모두 사라져 버렸다. 어쩐지 마음이 편하지 않다. 다른 모든 꽃들을 사라지게 한 이 꽃의 정체는 무엇일까? 집에 돌아와 야생화를 사랑하는 친구에게 전화로 물어 보았다. 외래종 제비꽃이라고 한다. 보라색과 흰색으로 소박하게 피어 봄날 우리들에게

작은 기쁨을 안겨 주던 우리들의 토종 제비꽃. 그들을 닮아 우리들에게 욕심 없는 소박한 마음을 갖게 해주었던 제비꽃이 외국에서 온 제비꽃에 밀려 사라져 버리다니...

이 화려한 봄날 갑자기 마음이 아파 온다. 왜 우리 꽃들은 이렇게 힘이 없는 것일까? 아니 힘이 없는 것이 아니겠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타인을 배척하지 않는 본래의 순수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씨를 닮은 것이겠지. 요즘은 각박해진 환경 탓으로 순수한 마음이 사라진 부분도 있지만 아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정이 많은 민족이다.

### 제비꽃 유감

우리 토종 식물을 잘 지켰을 때 우리는 그것이 식물 자원이 되어 우리들에게 금전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자생식물인 수수꽃다리도 외국에 나갔다가 라일락이라는 이름을 달고 왔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심이 부족한 틈을 타서 우리의 토종식물들이 외국으로 건너가 그들에 의해 기꾸어 지고 개량되어 우리나라에 다시 들여올 때는 값비싼 상품이 되어 우리들에게 큰 대가를 지불하게 한다.

학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우리나라 식물과 동물 자원에 대한 조사와 지키는 방법을 연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자원을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나가야겠다. 우리들도 우리나라의 토종식물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아끼고 사랑해 주어야겠다.

- 박요정



◇ 위드드라마 저비신행회는 4월 12일 괴산수련원에서 성지순례 및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했다. 한편 이날 성공으로 능수 벚꽃나무 등을 구입해 19일 수련원 주변에서 식수 행사를 가졌다.

##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 전화사

기로스승 자선화

☎ (054)761-2466

### 국광사

주교: 정사우 승  
전수 묘섭계

☎ (054)772-8776

### 개천사

주교: 정사경 원  
전수 정법수

☎ (053)425-7910

### 단음사

주교: 정사안 성  
전수 유가해

☎ (054)333-0526

### 선림사

주교: 전수 심지장

☎ (054)261-0310

### 수계사

기로스승: 안주화

☎ (054)745-5207

### 수인사

주교: 정사지 공  
전수 지희심

☎ (054)247-7613

### 승천사

기로스승 원 봉

☎ (054)746-7434

### 제석사

주교: 전수 법상인

☎ (053)743-9812

### 진언공덕

가득하시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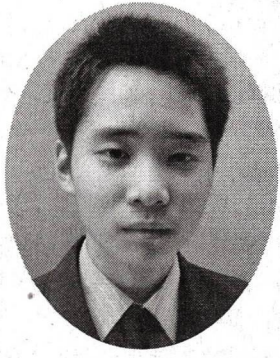
대구·경북교구 신정회

## 대구·경북교구 일동



# 총지문에

## 목소리



천재완  
동해중 3-6반

피아란 하늘 속을  
여유로이 자적하는  
흰 구름 속으로

살며시 내비친  
산봉우리  
세월의 억힘을  
영글어 가듯  
내 마음이 매아리치네.

내 언젠가  
내 마음의 소리를  
들겠지.

슬프고 울적한  
내 마음의 목소리를

지금 나는  
피아란 하늘 속을  
여유로이 자적하는  
흰 구름을 유유히  
바라본다.

들려라 목소리여  
피여라 내 마음이어.

내 언젠가  
내 마음의 소리를  
들겠지.

마음의 목소리를.....



## 우리들의 이야기

### 그곳에 바람처럼 머물고 싶다

어느 조용한 외딴 마을에  
별장을 만들고 그곳에 모여  
밤새 대화를 나누며  
바람처럼 머물고 싶다

가을이면 잘 익은 대추를 따서  
대추차를 끓이고  
잘 익은 석류로 술을 담가  
그동안 알고 지내던  
소중한 인연들을 초대해서 마음을 나누고  
황토 흙으로 만든 벽난로에  
고구마를 구워 가며  
세월의 책장을 넘기고  
이런저런 대화의 꽃을 피우노라면

향기 잃어 가는 삶의 밭에  
한 송이 풀꽃이 피어나리라

대지 위에 쉬어 가는 바람처럼  
흘러가는 게 삶이고  
머물지 않는 게 오늘임을 알기에

사는 날까지 기쁨을 잃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또 하루를 살아가리라

웃음으로  
희망으로  
오늘도 내일도  
바람처럼 머물며 이 땅위에서 쉬어 가리라.

봄비가 온 세상을 적셔주는 아침입니다.  
다.  
총지사님들!! 고운 하루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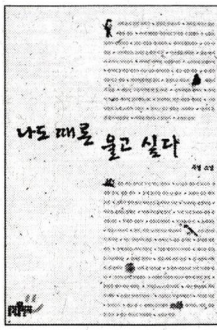


-고현

## 이달의 추천도서

나도 때론 울고 싶다

주경 지음/ 불광 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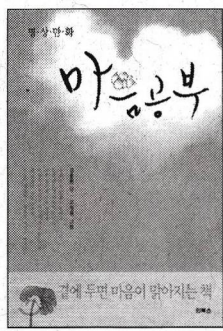
서산 부석사 주경 주지스님의 첫 에세이집. 요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이들이 많다. 정신과 의사들은 무한 경쟁 시대에 과도한 스트레스로 짓눌려 있는 이들에게 "울고 싶을 때 울어라, 울어도 괜찮다. 우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고 이른다. 수행자의 진솔한 내면을 담은 이 책 역시 마찬가지다. 저자는 종단의 변화가 느릴 때, 남부럽게 볼거리는 종단사태를 대할 때, 수행에 진보가 없고 장애에 걸려 헤어나지 못할 만큼 심신이 고달파질 때, 간혹 출가 승려의 틀조차 한계로 느껴질 때 울고 싶다고 고백한다. 문득 정진이 안 될 때 흥신 울어서 번뇌 망상 다 씻어버리고 새로 정진의 마음을 낸다는 저자의 이야기는 독자들에게도 울음이 갖는 카타르시스를 깨닫게 한다.

수행자도 삶의 희로애락을 느낀다. 간혹 흔들릴 때도 있고, 울고 싶을 때도 있다. 그렇지만 2% 다르다. 늘 마음을 챙기며 수행하기 때문이다. 느끼는 것은 같아도 받아들이고, 마음을 쓰는 것은 다르다. 수행을 통해 얻은 삶의 지혜와 부처님께 흡수된 자비심

덕분일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수행자의 일상에서 드러나는 구체적인 삶의 지혜와 지비를 배울 수 기회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 명상만화 마음공부

김중현 지음/ 인 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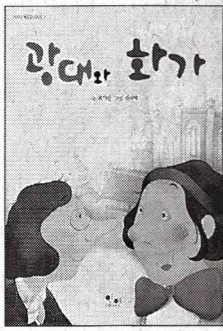
순진무구한 동자승과, 지혜로운 늙은 스승의 문답을 통해 행복에 이르는 길을 담아낸 불교 명상만화. 익숙한 선사들의 화두를 해석적이고 간결한 1~3컷 짜리 그림으로 재구성하여 수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선사들의 시대를 뛰어넘는 깨달음과 촌철살인의 지혜를 보여준다.

'마음 열기', '마음 찾기', '마음 일깨우기', '마음 닦기', '마음 짓기' 등, 마음공부의 과정을 모두 다섯 단계로 나누어 구성하였고, 각각의 예화마다 만든 사람의 의도와 시대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모든 것을 내 안에서 찾는다'는 가르침을 기조로 하고 있으므로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도 삶을 통찰하는 훌륭한 지혜를 만날 수 있다.

또한 동양화를 전공한 화가의 정감 있는 삽화는 구도의 길을 익살스럽게 그려내고 있으며, 예화와 함께 덧붙인 군더더기 없는 짤막한 풀이 또한 마음공부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

### 광대와 화가

최기민 지음/ 아름다운 인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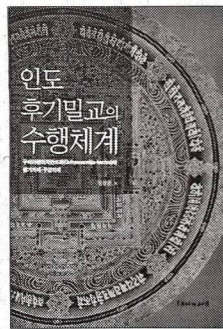


어린이 백유경 시리즈 1 『광대와 화가』. 옛날, 아주 먼 어느 나라에 남의 흉내를 잘 내는 광대가 살았습니다. 광대의 흉내는 너무 재미있어서 온 마을에 유명해졌어요. 결국 왕의 부름을 받은 광대는 왕 앞에서 왕의 흉내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광대의 흉내에 기분이 나빠져 광대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감옥에 갇힌 광대는 어떻게 될까요? 함께 감옥에 갇힌 광대를 구하려고요.

『백유경』은 5세기경 인도의 상가세나 스님이 엮은 책입니다. 모두 98개의 우화가 있으며 상가세나 스님의 해설이 곁들여 있습니다. 어려운 불교교리를 짧은 우화로 쉽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즐겨 읽는 경전 중의 하나입니다.

### 인도 후기밀교의 수행체계

정성준 지음/ 이스트워드



인도 후기밀교 연구서. 인도 후기밀교시대는 8세기 중엽을 전후해 시작된 것으로 생각되며, 기차제와 구경차제의 수행을 통해 범부의 삶과 죽음, 죽음을 불신

으로 전환하는 독특한 면모의 밀교가 전개되었다. 인도 후기밀교는 한국불교의 전통에서 볼 때 매우 생소한 영역이지만, 불교의 역사를 인도대륙의 틀 속에서 볼 때 석존의 가르침이 인도의 문화와 지적 환경에 따라 전개되고, 열매 맺어 이루어진 결과가 인도 후기밀교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책은 『비밀집회판뜨라』를 포함한 불교판뜨리즘의 형성과 전개를 소개하고, 성취법을 중심으로 생기차제와 구경차제의 수행체계를 연구하였다.

### 반야심경 금강경 법화경 유마경

홍정식 지음/ 동서문화사



반야심경·금강경·법화경·유마경·회쟁론·육조단경 등 불교 대표경전 6편을 수록한 책. 불교는 고도의 관용성과 강한 적응성을 보이는 종교로, 교단으로서도, 또 교의적으로도 중앙집권적인 통제가 희박하다. 그러나 강인한 유연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서서히 번져가고 파고드는 물과도 같은 역할을 하여, 이를 배경하는 계층의 사람들까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상의 어느 부분에 동화되곤 한다.

이 책은 '대반야경'의 기본 사상을 요약·압축시킨 「반야심경」에서부터 현재 한국불교 근본경전인 「법화경」, 「반야경」의 정신을 문학적으로 엮은 「유마경」에 이르는 6편 대표 경전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고 있으며, 또한 한 누구나 읽기 쉽도록 풀이하였다.

#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110년 1722년

<b>관음사</b> 주교: 전수 정원심 ☎ (051)896-1578	<b>단향사</b> 주교: 전수 행원심 ☎ (055)644-5375	<b>덕화사</b> 주교: 정사 대원 전수 정인화 ☎ (051)332-8903	<b>밀행사</b> 주교: 전수 금강륜 ☎ (055)354-3387	<b>법성사</b> 기로스승: 혜암 ☎ (051)468-7164	<b>삼밀사</b> 주교: 정사 원송 전수 인법계 ☎ (051)416-9835	<b>정각사</b> 주교: 정사 법공 전수 공덕성 정사 도현 전수 자인행 ☎ (051)552-7901
<b>성화사</b> 주교: 정사 지광 전수 수심정 ☎ (051)254-5134	<b>실보사</b> 주교: 정사 우인 전수 보명심 ☎ (052)244-7760	<b>일상사</b> 기로스승: 수행월 ☎ (055)352-8132	<b>운천사</b> 주교: 정사 인선 전수 정계월 ☎ (055)223-2021	<b>자석사</b> 주교: 전수 혜안정 ☎ (051)752-1892	<b>화음사</b> 주교: 정사 수현 전수 자심관 ☎ (055)755-4697	

## 부산·경남교구 일동



<종보100호 기념 특집 기고 3 / 밀교연구소 기필>

# 현대 한국밀교종단의 탄생과 나아갈 방향 ①

## 1. 현대 한국밀교종단의 탄생

고려를 끝으로 거의 사치를 감추었던 한국 밀교는 해방이후 한반도에 새롭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근현대에 한국밀교의 중흥기를 맞이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47년의 대한불교 진각종, 1948년의 대한불교 진언종, 1972년 총지종의 창종이 그것이다.

그러나 정통밀교로서의 교상과 사상의 측면에서 처음부터 밀교종단을 표방한 것이었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왜냐하면 총지종을 제외한 종단들이 초기에는 밀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참회원이나 참회도량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밀교를 표방하며 밀교경전을 근거로 한 교상과 사상의 정립, 밀교의 비법과 의식의 완비는 총지종의 창종에 이르러서이다.

대한불교 진각종은 신라 선덕여왕(善德女王) 때 명랑법사(明朗法師)가 창종(創宗)한 신인종(神印宗)을 연원으로 하고, 1947년 회당 대종사(속명: 손규상孫圭祥)가 경상북도 달성군 서서에 참회원(懺悔院)을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 1949년 심인불교(心印佛敎)로 개칭하였고, 1953년 대한불교 진각종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육자진언(六字眞言) 음마니반메움을 염송하는 밀교종파로서 법신(法身) 비로자나불의 체(體)가 되는 육대(六大), 법신불의 상(相)이 되는 사만(四曼), 법신불의 용(用)이 되는 삼밀(三密)로 일체에 자비를 베풀고 현세정화와 즉신성불함을 종지(宗旨)로 삼고 있다.

대한불교 진언종은 신라시대에 총지종(總持宗)을 창종한 혜통(惠通)을 종조(宗祖)로 삼아 손해봉(孫海捧)이 1948년 경상북도 포항에 참회도량(懺悔道場)을 설립한 것이 효시이다. 종지(宗旨)는 대일여래(大日如來)를 주존불(主尊佛)로 삼고 밀교(密敎)의 만다라행(曼荼羅行)을 실천수행하여 자아완성과 진호국가(鎮護國家)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심 진언은 음마니반메움과 광명진언을 염송하고 있다.

불교 총지종은 1972년 창종된 밀교종단이다. 경남 밀양에서 탄생하신 원정(苑靜) 대종사께서 한국밀교의 중흥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밀교종단을 창종하였다. 이 불교 총지종(總持宗)은 삼국시대의 총지종(總持宗)과 종

명이 다르다. 타종단과 달리 삼국시대를 연원으로 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역사적인 근거나 논리에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삼국시대의 밀교가 근현대에 와서 새롭게 탄생한 것이므로 한국밀교의 중흥이라 말할 수 있어도 한국밀교종단의 중흥이라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한국밀교 종단의 역사적인 연결고리도 없을 뿐더러 법맥상승(法脈傳承)의 계보도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총지종의 종조(宗祖)를 창종주인 1972년 창종된 불교 총지종은 시작부터가 예사롭지 않다. 해방 이후 한국에 '밀교'라는 용어와 개념을 최초로 도입하셨을 뿐 아니라 총지종의 창종주인 원정 대종사의 일대기와 현대 한국밀교사가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종조 원정 대종사는 정확한 인계, 엄격한 의례와 각종 밀교의 비법을 비롯하여 교상(敎相)과 사상(事相)면에서 완벽한 체계를 갖춘 정통밀교의 확립에 노력하였다. 특히 한국불교사상 최초로 양부 만다라를 완성하여 불안한 것은 한국밀교의 대표종단으로서 면모를 보여준 것이다.

총지종은 법신 비로자나불을 주존으로 삼고, 비로자나불의 또다른 모습인 관세음보살의 본심진언 육자대명왕 진언 '음마니반메움'을 본존(本尊)으로 모시며, 육자진언과 함께 '준제진언'을 삼밀관행의 중심수행법으로 삼고 있다.

교라 하기보다 밀교에 더 가깝기 때문에 현교와 밀교의 분류는 기준이나 근거가 애매모호하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불교를 현교와 밀교로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조계종을 위시한 제종단을 현교라고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밀교는 비밀불교를 줄여서 말하는 것으로 인도 대승후기에 나타난 불교이다. 그런데 한국 불교에서 현교와 밀교라 하는 것은 인도의 밀교와 조금 거리가 있다. 내용과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드러내어서 가르치느냐 비밀스럽게 가르치느냐를 현교와 밀교로 편의상 구분한 것일 뿐이다. 현교 종단과 밀교 종단의 구분은 그자체가 불가능하고 무의미한 것이다. 굳이 구분한다면, 출가종단과 밀교재가종단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교와 밀교의 오해의 예를 한가지 소개한다면, 삭발승에 전통사찰, 불상을 모신 사찰의 종단을 현교라고 표현하면서 유발승에 현대식 건물, 불상을 모시지 않는(대부분 총지종, 진각종을 말함) 사원의 종단을 밀교라고 쉽

러나 일부분이라해서 밀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바른 이해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한국밀교의 모습이 밀교의 전체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한국밀교를 바로 보는 것이 못된다. 밀교에 대한 바른 인식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한국밀교를 이해하는 데 혼란만을 가져올 뿐이다. 현대 한국 밀교는 인도밀교 본래의 전체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인도밀교 가운데 일부만을 취사선택하여 나름대로 적합한 교상과 사상체계를 갖춘 '한국식 밀교'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총지종의 지표가 이를 말해준다. 「생활불교, 불교의 생활화, 이를 위해서 편의보발(便衣保髮)한다. 그래서 재가불교를 표방하며 사원을 시중에 둔다. 사원양식을 현대화하며 불상 및 공양물과 배례(拜禮)를 배제한다」는 것이다.

또 중심 교의(敎義)는 법신 비로자나불을 주존으로 삼고, 관세음보살의 본심진언 육자대명왕 진언 '음마니반메움'을 본존(本尊)으로 모시며, 육자진언과 함께 준제진언을 삼밀관행의 중심수행법으로 삼아 현세정화와 즉신성불을 구경으로 하고 있다. 승속(僧俗)이 동수(同修)라 승승과 신도가 함께 염송정진한다. 신도의 불공을 승승이 대신해주지 않는다.

반드시 승승이 집공(執供)해야 불공 염송을 시작하는 것도 아니다. 신도 개인이 시간을 정해놓고 법당(서원당)에서 각자 불공 염송정진에 들어간다. 그야말로 스스로 닦고 불공을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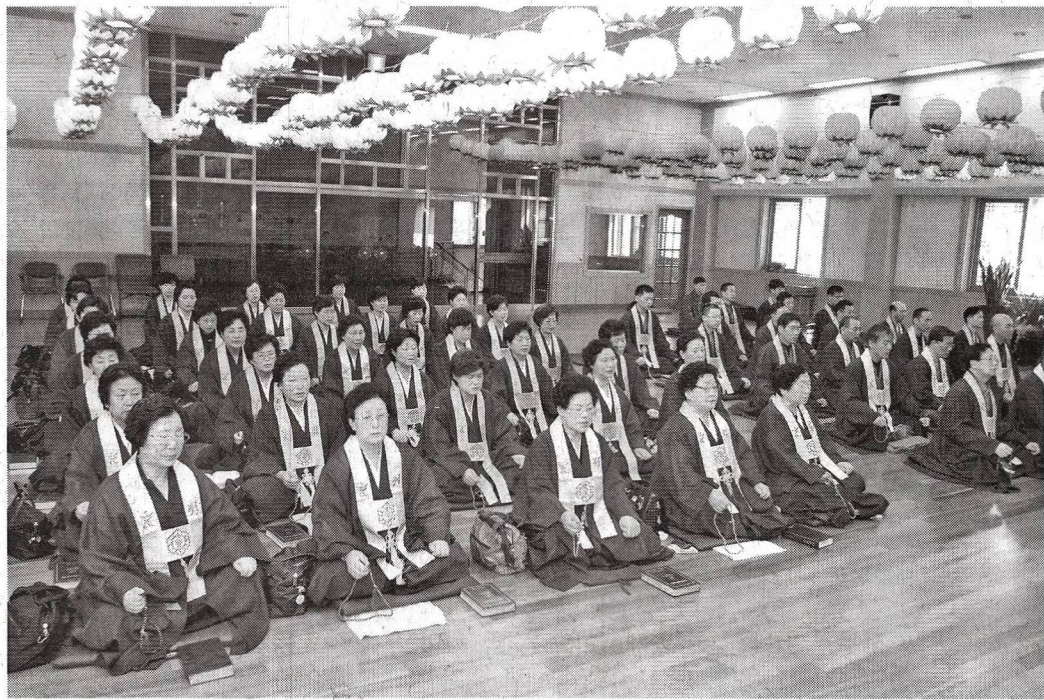
자기분위의 실천과 수행으로 즉신성불을 구경으로 하는 밀교종단인 것이다. 이것이 밀교종단 총지종의 모습이다. 이것이 한국밀교의 한 축이다. 그러나 밀교의 전체 모습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단지 밀교를 표방하고 있는 현대 한국밀교종단이라고 이해하여야 한다. 오히려 밀교적인 색채는 조계종 등이 더 농후하다.

모든 의식에 진언이 빠지지 않고 공양법이나 관정의식 등 많은 작법들에 요령, 동발, 목타이 들어간다. 거의 밀교의 의식에 가깝다. 그러나 조계종을 밀교종단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신종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밀교종단이 안고 있는 당면과제가 바로 이 부분에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밀교종단이 더 밀교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작법과 의식을 개발하고, 도량의 장엄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때다. 경전에 근거한 밀교의식과 비법들을 더욱 발굴해내는 작업, 신도들에게 즉신성불, 현세정화를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밀교를 더욱 중흥시키는 길이다.

체(體)는 유지하되, 상(相)과 용(用)을 최대한 활용하는 다양성을 재고(再考)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삼국시대, 고려를 거쳐 흥양했던 밀교를 계승발전시키는 노력은 먼저 한국밀교의 역사와 유물, 유적지를 발굴하고 보전하는 일이다. 한국밀교를 위해 밀교종단과 학계의 공동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 법경 정사 / 밀교연구소



## 현교와 밀교, 출가종단과 재가종단의 정립

“출가와 재가밀교종단이 바람직...”

‘다양한 작법과 의식의 개발, 도량의 장엄 문제’

‘한국밀교의 역사와 유물, 유적지 발굴 보전 노력’

삼아 현세정화와 즉신성불을 구경으로 하고 있다.

## 2. 한국밀교종단의 나아갈 방향

현대 한국불교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으나 크게 종단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출가종단(出家宗團)과 재가종단(在家宗團)이다. 물론 현교(顯敎)와 밀교(密敎)로 나누기도 하지만 출가와 재가만큼 분명한 구분은 못된다. 출가종단, 재가종단을 좀 더 명확하게 부른다면 출가승 종단, 재가승 종단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불교에서 현교와 밀교라는 구분보다 출가승 종단과 재가승 종단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고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 이유는 조계종을 위시한 선종이나 기타 종단은 현교라고 하지만 현교라고 부르는 정확한 기준이나 근거가 없고 오히려 현

교를 말하는 현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네 가지로 분류한 화의사교(化儀四敎) 가운데 법을 드러내어 가르치는 것은 중생의 근기 따라 다르므로 딱히 하나로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현로부정교(顯露不定敎)를 말하는 것이고, 이에 대비한 밀교는 '서로 알리지 않은 채 비밀로써 각각에 응당한 법으로 가르침을 전해준다'는 비밀부정교(秘密不定敎)를 일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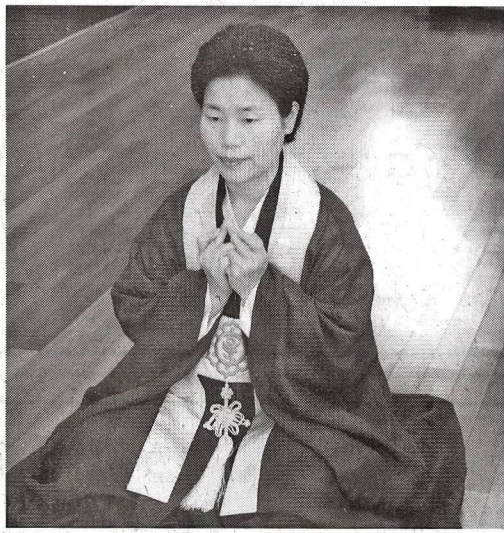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형식을 나눈 것에 불과한데, 마치 현교와 밀교가 교단으로 분리될 만큼 별도의 교상과 사상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도 인도의 비밀불교를 현교와 대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참으로 어불성설이다. 인도 후기에 나타난 비밀불교의 밀교는 별도의 교리와 사상 체계를 갖추고서 교단을 형성하였지만 현교는 별도의 교리사상이나 교단을 갖출 성질의 것이 아니다.

게 생각해보면된다.

이는 밀교에 대한 곡해로 이어진다. 머리를 기르고 불상을 모시지 않고 육자진언을 모시고 진언을 의우면 밀교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은 밀교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으나 밀교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밀교의 범위를 너무 좁는 것이다.

심한 경우에는, 머리를 깎고 가사장삼을 걸치면 현교이고, 머리를 기르고 일반 복장을 하고 있으면 밀교라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밀교를 너무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밀교는 무공무진하다. 무공무진함 속에 하나가 한국밀교라고 보아야 한다.

정통 인도밀교는 수많은 불보살을 필요로 하며, 다양한 의식작법과 각종 진언을 동반한다. 그러나 현대 한국밀교는 전체 중에 일부만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 정확하다. 극히 일부분을 채택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



◇준제결인 모습

# 총지종 정각사 바라밀 지역아동센터

바라밀 공부방은 방치된 아동들을 정성껏 보살피고, 학습, 교육하는 것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현하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 이용대상

저소득층의 맞벌이 부부의 아동, 결손아동, 생활보호대상자 아동, 차상위 아동

### 프로그램

- 학습활동 : 국어, 수학, 영어, 한문
- 신체활동 : 요가, 태권도
- 문화활동 : 영화보기, 비디오상영
- 특별활동 : 컴퓨터, 미술수업
- 급식제공 : 일일1회석식제공, 간식제공
- 홈페이지 : happylog.naver.com/baramil.do

### ※ 바라밀 지역아동센터 자원봉사자 수시 모집

바라밀 아동들의 학습지도 및 컴퓨터 지도를 해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1회~2회 2시간정도 봉사해 주실 뜻있는 분을 기다립니다.

### ※ 후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바라밀 아동들의 문화프로그램 신장은 위한 후원을 해주실분을 기다립니다  
기업은행 094-059285-04-046 예금주: 바라밀지역아동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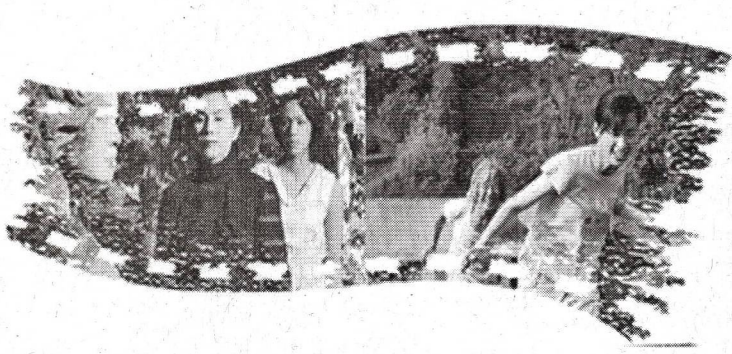
연락처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8-8 ☎ : 051-552-0705





# 부처님오신날 앞둔 극장가도 '봉~축'

## 불교사상 다른 태국 일본 영화 속속 개봉 '관심'



◇ '누알'과 '린' 두 여인의 애증과 욕망이 얽힌 영화 '카르마'



◇ '너를 보내는 숲'은 칸느영화제 그랑프리 수상작

최근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스님이 나 사찰이 배경 무대나 장치로 등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불교사상을 다룬 영화나 드라마는 찾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불교사상을 담아낸 영화가 속속 선보여 눈길을 끈다. 태국영화 '카르마'와 일본영화 '너를 보내는 숲'이 그것. 두 작품 모두 수입 영화지만, 완성도 높은 작품성과 그 안에 녹여진 불교사상을 음미해 보는 재미도 쏠쏠할 듯하다.

영화 '카르마'는 이름 그대로 '업'을 뜻하는 'karma'를 그대로 차용해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찾아오는 재앙 등을 일컫으며, 영화 속 두 여자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된다. 태국의 뉴웨이브의 선두주자로 세계 유수 영화제에서 작품성을 인정 받고 있는 위시트 사사나티앙 감독의 신작으로 죽어서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하는 두 여자의 애증과 욕망이 얽힌 이야기다.

극 중 무대는 비밀의 고(古)저택. 실종된 남편 '츨'을 찾아 시골에서 상경한 만사의 인산부 '누알'은 부유한 과부의 저택에서 며칠간 지낼 것을 겨우 허락 받는다. 저택의 여집사 '솔지'에게 안채 쪽에는 일진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호기심 많은 '누알'은 안채에 기거하고 있는 고혹적인 외모에 비밀스런 분위기를 풍기는 안주인 '린' 부인과 마주치게 된다. 탐진치삼독심에 빠진 중생의 고통이 표면적인 '공포'로 묘사된다. 6월19일 개봉.

최근 개봉한 영화 '너를 보내는 숲'은 무심한 듯 평온함 속에 누구나 짙어진 삶의 무게를 조용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담아낸다. 죽음으로 생과 사가 갈라진 이별에 쓰러진 기억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동반하지만 이것도 또한 삶의 한 단편임을 전하고 있다.

사고로 아들을 잃고 시골의 노인 요양원에서 간병인 일을 하는 마치코는 아들의 죽음에 미칠 것 같은 죄책감으

로 하루하루를 그저 의미 없이 살아간다. 어느 날 마치코는 33년 전에 죽은 아내 마코와의 행복한 추억만을 기억에 담고 살아가는 시계기라는 노인을 만난다. 마치코는 시계기를 마코의 무덤이 있는 숲으로 데려다주기 위해 함께 길을 떠나고, 생사의 경계에서 노인과 그녀만이 남는다. 영화 속에서 한 스님은 "삶은 위(胃)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말한다. 즉, 살아있다는 건 '실감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영화는 죽음을 다루고 있지만, 결국 먹고 사는 것과 다른 이 순간에 '살아있음'을 화두로 삼고 즐기게 명상한다.

지난해 칸느영화제 그랑프리 수상작인 이 영화는 일본불교에서 33주기 기일이 되면 죽은 이는 이승을 완전히 떠나 부처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고 믿는 사상을 담고 있다. 원제 '모가리노 모리'에서 '모가리'도 소중한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고 보내주는 일본의 전통의식이다.

영화평론가 하재봉 씨는 영화 '너를...'에 대해 "마지막 감감한 화면 위로 엔딩 크레딧이 올라오는 순간, 잠깐 어둠에 몸을 숨기고 지난 생을 생각해 보고 싶었다"고 했다. 밑바닥을 치고 올라온 공은 다시 하늘로 치솟게 마련이다.

# 불교중앙박물관 개관 1주년 '범보' 전 개막

## '범-소리 없는 가르침'



◇ 불교중앙박물관 '범보' 전 개막법회

불교중앙박물관(관장 범하)은 4월 28일 황룡사지 출토 사리, <보협인다라니경> 등 '범-소리 없는 가르침'을 주제로 개관 1주년 특별 '범보'전을 개막하고 6월 29일까지 전시 일정에 들어갔다.

개막식은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앞에서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 호계원장 범등 스님, 최광식 국립중앙박물관장, 이귀례 한국다문화협회 회장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범'은 절대적이고 확고불변의 가치를 품부하고 있을 때 만세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부처님이 깨닫고 설한 말씀이 '범'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계승되는 것은 그 말씀이 참으로 그러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또 "불교중앙박물관의 역량으로 펼쳐낸 진리의

# 문광부, 연등축제 국내외 홍보

## 연등축제에 장관 참관예정

문화관광체육부(장관 유인촌)가 부처님오신날 홍보지원 계획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문광부 조무실(실장 권영진)은 최근 문광부 국문 홈페이지(mcst.go.kr) 및 영문사이트(Korea.net)에 연등축제를 알리는 배너를 설치하고 다양한 홍보 지원에 나섰다. 조무실은 4월 28일부터 고속터미널 상가옥상, 청계천 광장, 서울신문사, 테헤란로 등 서울 시내 옥외전광판 동영상 광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광부TV에 17분 동안의 동영상 홍보물을 올리는 한편, KTV(한국정책방송)에 봉축관련 코너들을 기획하고 국제위성방송인 아리랑TV를 통해서도 연등축제를 다양하게 취재해서 보도할 예정이다. 이밖에 1만4천여부 발행, 재외 160개국 공관에 연등축제를 소개하고, <코리아 플러스>를 통해서도 기사와 광고를 통해 홍보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조계종 기획실 관계자는 "문광부가 주도적으로 봉축 홍보지원 계획을 마련한 것은 연등축제를 한국의 고유한 전통축제로 인정할 것"이라며 "향후 연등축제의 무형문화재 등재와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의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유인촌 문광부 장관은 종로3가 제동행렬을 참관하며, 제동행렬 후 이주노동자 등 행사 참석 대중들과 즉석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 유인촌 문화부장관

# 서해교전 및 서해안 희생자 위한 천도재 열려

## 대불종과 방생법회 '나라와 중생을 위한 용왕대제' 봉행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회(공동회장 대표 박희도, 이하 대불종)과 대한불교조계종방생법회(회장 이건호)가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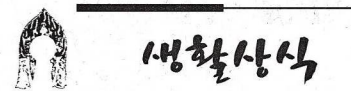
월 26일 오전 9시부터 한강수상법당에서 '나라와 중생을 위한 용왕대제'를 봉행했다.

서해교전 희생자와 서해 기름유출 사고의 희생자, 유주 무주교혼을 천도하기 위해 열린 용왕대제는 오전 9시부터 한 시간 가량 한강수상법당에서 1부가 진행되고 10시 30분부터 유람선에서 용왕제 2부가 열렸다.

이날 용왕제는 남한산성 호국도량 망월사 성법 스님의 법문에 감동을 받은 박희도 회장이 발심해 이루어졌다. 박희도 회장은 "서해교전 희생자 서해안 기름유출 희생자 등을 천도하고자 용왕대제를 마련하게 됐다"며 "탐욕을 반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국가 발전에 적으나마 기원코자 한다"고 인사했다.

2부 용왕대제 법회에서 성법 스님은 "용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고 운을 뗀 뒤 "인도 나란대 대학은 나란대 여왕이 부처님이 <법화경> 설하시는 것을 듣고 감탄해 그 자리에서 대장부로 몸을 바꿔 해탈하고 부처님 말씀을 널리 알리는 장소를 만들겠다고 발원해 나란대 대학을 건립하게 된 것"이라며 "이렇게 용왕제를 지내는 것에 신경 쓰고 호국 불교인을 잊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여성들이 헛된 일에만 신경 쓰지 말고 신심을 드높여 올바른 일을 하도록 열심히 살라"고 말했다.

이어 김이리 시인의 현시 낭송, 서인숙씨의 살풀이춤, 이종철 화백의 달마도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 카펫에 붙은 끈은 얼음으로 제거

카펫이나 소파에 끈이 붙었을 때는 비닐 봉지에 얼음을 담아서 대고 있으면 끈이 딱딱해지면서 잘 떨어진다. 한 번에 떨어지지 않을 때는 낡은 칫솔로 문질러 제거한다.

### TV 브라운관은 스타킹으로 닦는다

TV 브라운관을 청소할 때는 화학 섬유의 정전기를 이용한다. 울이 나간 스타킹으로 가볍게 닦아내면 먼지가 쉽게 제거되어 화면이 선명하게 보인다.

### 가전제품 리모컨은 알코올로 청소

가족들이 매일 만져 손때가 잘 타는 리모컨. 집자기기는 물론 청소하면 안되므로, 면봉에 소독용 에탄올을 묻혀 닦으면 손때가 금새 말끔하게 닦인다.

### 새 옷을 잘 세탁하려면

새 옷을 세탁할 때는 색깔을 선명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는 소금으로 애벌 빨래를 하는 것이 좋다. 먼저 옷을 물에 적신 뒤에 굵은 소금을 한 줌 뿌려 문질러 헹군다. 그런 다음 세제로 빨면 색상이 변하지 않는다. 목면 티셔츠의 경우, 세제에 소금을 섞어 빨아도 효과적이다.

### 세탁물을 건조하는 요령

세탁물을 건조할 때는 두꺼운 것과 얇은 것, 어른과 아이 옷을 교대로, 천의 두께를 고려하여 너는 것이 좋다. 두꺼운 옷과 얇은 옷이 번갈아 널면 빨리 마르지 않는다. 그러나 두꺼운 것과 얇은 것, 어른 옷과 아이 옷을 교대로 널면 바람이 잘 통하여 잘 건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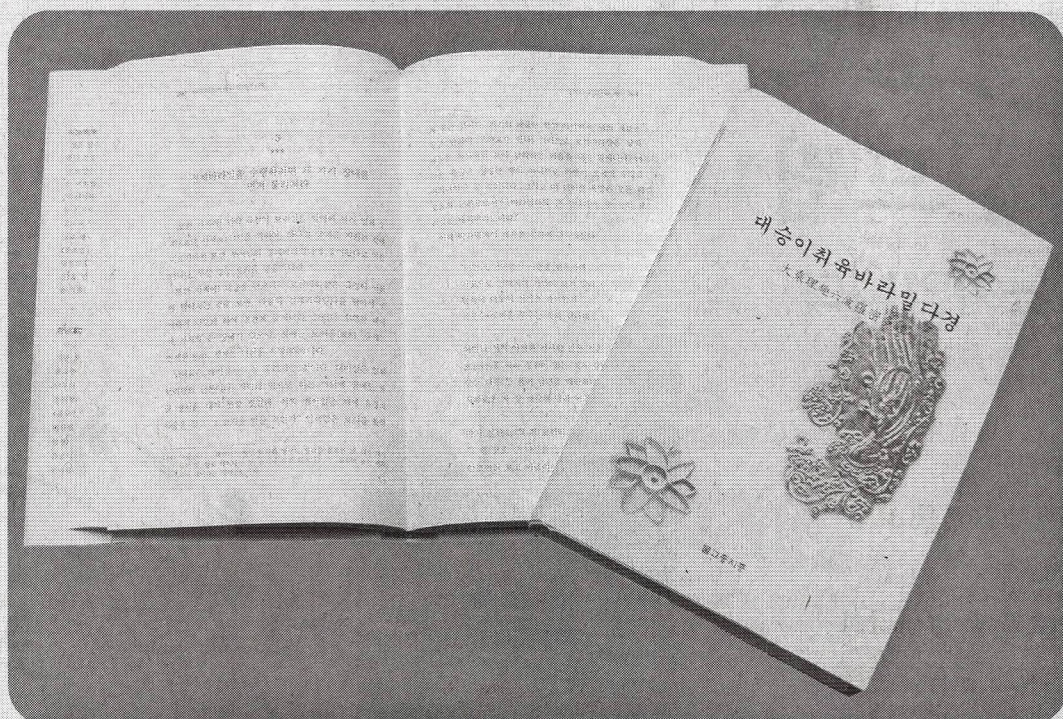
### 포켓 티슈의 보관

티슈 함의 세로 폭과 주유소에서 사은품으로 주는 포켓 티슈의 가로 폭은 대부분 길이가 같다. 그냥 두면 차 안을 어지럽히는 포켓 티슈도 티슈 함에 넣으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

### 플라스틱 용기의 냄새 제거

살균 효과가 있는 소금은 냄새를 제거하는 작용도 한다. 플라스틱 용기에 물과 소금을 넣고 흔들어 주면 냄새가 사라진다. 소금은 천연의 세제로서 주방의 묵은 때를 벗기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 대승불교의 실천덕목인 육바라밀을 설한 경전



##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은

반야사상에 기초하여 대승보살이 닦아야 할

여섯가지 바라밀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실천하여 궁극적 지혜를 얻음으로써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주는 총지종의 소의경전입니다.

# 불교총지종법장원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 02)552-1080



총기 FOCUS / 부산 경남 사원탐방

# “진언행자로 만남은 전생부터 닦아 온 인연공덕이죠”



△ 부처님 오신날 분위기가 무르익은 정각사에서.

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상호 유대를 강화하는 교류의 장이 되었다.

2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동안 홍보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웠다. 지난 몇 년간 현교의 교찰을 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각 우리 종단 소속의 사원방문에는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지난달 대구, 경북교구 사원을 방문하면서 교도들과의 상호 교류증대와 교화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 비록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부처님을 향한 마음은 서로 일체감을 형성하고 있어 아름다운 인생여정의 도반을 만나는 듯한 설렘으로 가득하였다.

지역은 다르지만 같은 종교를 신앙하고 있는 것 자체로 서로 만나면 만날 때마다 기쁨과 행복, 환희심으로 어머니의 따뜻한 품안처럼 애정과 정겨움이 스며든다. 이 모든 것이 전생부터 닦아온 인연의 공덕이 아닐까 생각해보는. 이렇게 반갑고 정겨운 지방 보살님들과의 만남을 통해 애중심과 더불어 옴니반메홀의 진언행자로 수행하고 있음에, 부처님의 송고하고 오묘한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 수행자로 생활하고 있음에 감사함을 느낀다.

이번 탐방의 첫 일정은 정각사로부터 시작되었다. 부산지역 통신원들과의 의미 있는 만남을 기대하면서 정각사에 도착 했다. 스승님들과 신인록 지회장님께서 반갑게 맞이하여 주셨다. 법당과 강당에는 보살님들이 환희심 가득한 얼굴로 정성스럽게 초파일 연등을 만들고 계셨다.

정각사는 부산 동래구 온천장 입구에 위치해 있는데, 단청을 하지 않은 수수한 건물로 사찰 뒤로는 총지종 종립 학교인 동해 중학교가 자리잡고 있으며, 앞쪽에는 금정산의 호연지와 웅장한 기운이 흘러내리는 정기어린 사찰이다. 오랜 전통을 간직한 데다 많은 대덕 스승님들께서 거쳐 간 곳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 종단 중 신도수가 가장 많은 뿐 아니라 불심 또한 깊은 곳이다.

수 백이 넘는 교도들이 오직 불심 하나로 여기에서 수행하시는데 방문할 때 마다 법당 안에는 늘 많은 보살님들께서 불공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곤 한다. 정각사의 발전상과 미래상을 엿보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이곳은 3년 전에 열반하신 친정모친을

위한 49재를 올린 곳이기 때문에 평생 잊을 수 없는 곳이기도 하다.

화기에애한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법공님, 통신원들의 다과회 자리가 이어졌다. 법공님께서는 종단 차원에서 볼 때 낮은 감은 있지만 통신원 조직이 결성된데 대해 치하하며, 앞으로 종단의 교화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셨다. 통신원들의 유대관계 심화, 교화 활성화 방안 및 각 사원의 어려운 사정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도 이뤄졌다. 더불어 정각사는 교도들을 위한 결혼 상

스승님들과 운속회 회장보살, 김길엽 총무보살은 “덕화시는 아마 총지종 사원중에서 가장 화합과 단결이 잘된 곳”이라며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하다.

저녁 공양까지 하고 가시라는 스승님과 보살님들을 뒤로 하고 성화사로 바쁜 발걸음을 옮겼다.

### 신심제일 성화사

성화사는 본존 및 만다라 봉안, 극락전 조성 공사와 더불어 연등 만드는 작업도 법당 한 칸에서 한창 진행중이



△성화사 주교님과 함께.

담소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는 홍보도 있지 않으셨다. 홍보팀은 차후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다음 일정에 따라 덕화사로 향했다.

### 화합제일 덕화사

덕화사는 맑은 공기와 조용한 산자락에 자리하고 있으며, 입구에 들어서 는 순간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음을 느낀다. 웅장하고 화려한 자태로 무릇 모든 중생들의 번뇌와 망상을 초월하여 해탈의 경지에 도달한 수미산정의 불국토가 바로 이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3층 법당은 부 지리한 보살님들의 손길 가득 담은 연등을 달아 놓고 있었다. 덕화사는 대원 정사님과 정인화 전수님께서 교화하시고 계시며, 10여 년동안 덕화사에서 교화 하시면서 많은 교도들에게 부처님의 정법과 수행법을 전하며 향기로운 금강법계공을 건설하고 계신다. 덕화사

었다. 법당은 나름대로 아늑한 느낌을 주었다.

성화사는 지광 정사님과 수심정 전수님께서 교화하시고 계셨다. 두 스승님은 대구 개천사와 안강 건화사에서 교화하셨고 몇 년전에 성화사에 부임하여 자비한 부

처님 마음과 불퇴전의 정진력으로 성화사를 법신비로자나 부처님의 자비정토로 꾸며가고 계신다.

지광 정사님께서도 심신은 물론 법당과 가정도량도 청정해야 제대로 된 수행을 할 수 있는바, 부처님 법은 인과법에서 오고 인연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열심히 수행 할 것을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도 곁들이셨다.

자비하시고 인자하시며, 수행력과 정진력이 남다른 스승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어느덧 밤이 깊어졌다. 일행은 잠시 해운대 바닷가를 찾았다. 낮 동안 머문 인연들은 모두 어디론가 사라지고 새로운 인연들이 하얀 백사장에 모여 들었다. 멀리 바다 위를 떠 있는 일엽편주도 소중한 만남을 축복해주는 듯 하다.

불심과 부처님의 자비로운 향기가 물결따라 너울너울 출렁이는 부산!! 스승님들의 법문과 보살님들의 소중한 만남을 통해 소중한 부처님의 진리를 만나 수행하고 있음에 감사함을 느낀다. 마지막으로 이번 부산 탐방을 위해 아침 일찍부터 불편하신 몸에도 불구하고 직접 배웅해 주시며, 자애로운 부처님 미소로 “건강하게 잘 다녀오라”고 손을 흔들며 주시고, 탐방 중간 중간에 무사히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와 염려, 따뜻한 배려를 해주신 김은숙 서울지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홍보 편집 팀원들은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수행 정진하며 종단의 발전을 위해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겠다고 다짐 해본다.

-최해선



◁ 덕화사 사원당에서

### 포교제일 정각사

청명과 곡우 사이에 듣는 나뭇잎이 일년중 가장 맑다고들 한다.

연초록색 빛깔의 잎사귀들이 자신의 싱그러움을 맘껏 발산하며 세상을 향해 그 기쁨을 노래하는 듯 하다. 경이로움 그 자체일까.....

어디 그뿐이라. 어여쁜 잎사귀들로 곱게 단장한 나무들이 오순도순 모여 사는 숲. 모두를 보듬고 있는 불산! 눈앞에 펼쳐진 그 모습과 진면목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미사여구로 표현

할 수 없는 천상의 수채화다. 마침 햇님도 이 모습을 시샘하듯 엷은 구름 사이로 살짝 얼굴을 내밀어 감상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받들고자 그곳에 들른 어느 보살이 가던 발걸음을 멈춘 채 그 “천상의 수채화” 감상에 몰입해 있다. 불현듯 “자연 그대로가 바로 부처”라는 말이 떠올랐다. 자연의 이치가 곧 부처님의 말씀이요, 자연 속에 부처님이 계시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번의 탐방은 부산, 경남 지회장님 이신 신인록 보살님의 진언행자 가족을 찾아서라는 취재와 부산지역 통신



## 고창 최고의 복분자를 저렴하게 드립니다!

‘온 가족이 직접 재배부터 제조 생산하는 농가입니다.’

- 효능 · 효과 -



- \*치매 증폭 예방 및 치료
- \*항산화 효과-산화질소 생성 억제로 노화예방 (비타민C보다 5.2배 이상 효과)
- \*관절염 치료 예방과 오줌소태, 방광계통 치료
- \*위장 질병 치료예방(위궤양, 십이지장)
- \*장내 유해세균 억제
- \*항암효과(미숙과에서 특효를 보임)
- \*탈모방지, 발모촉진
- \*부인병에 탁월한 효과 및 정력강화

\* 가격: 복분자 엑기스 ₩40.000 복분자주 ₩25.000 \* 2병 이상 주문시 택배비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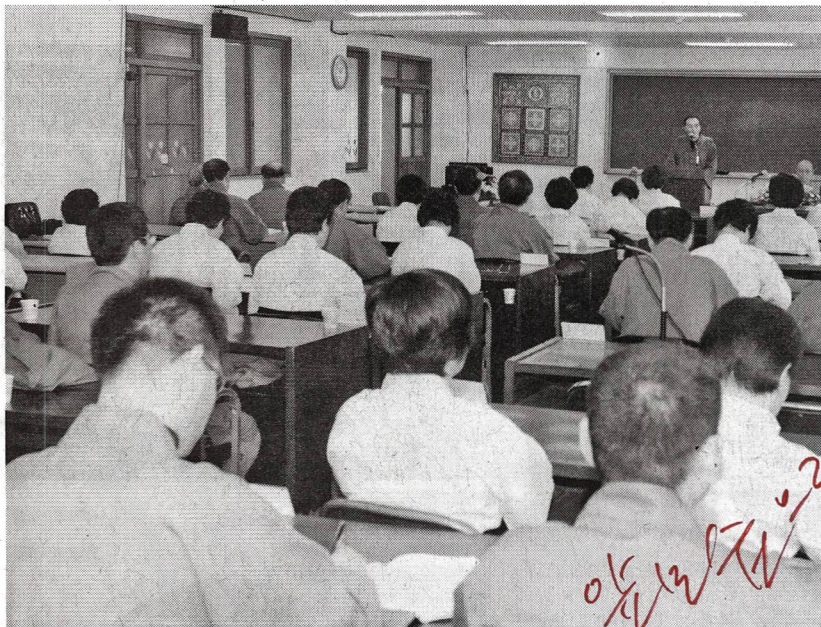
☎ 주문전화: 063-564-4230 018-603-4230





# “인재양성과 교화 브랜드 개발”

## 충단발전 대 토론회 개최



인재양성과 교화 브랜드 개발을 위한 대토론회 모습

충지총은 지난 4월 17일 춘계강공회 기간에 “충단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경인교구, 충청교구, 부산경남교구, 대구경북교구 등 4개교구에 2명씩 발표하였다.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은 충단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최초 발표자로 나선 원봉 기로스는 “스승은 매일 교도와 접촉하는 교회의 제일선에서 활동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그 사명이 중차대하고 따라서 충단의 성쇠를 좌우하는 두말할 것 없다. 그러므로 스승은 세간고락에 초연하여야 한다. 먼저, 자기의 인생관이 확립되고 그러한 지표로써 생활하는데 그 스승의 인격이 완성되고 따라서 이해와 영육에도 굴복하거나 동요되지 않는 지조있고 정의에 투철한 모범적인 스승을 신뢰하고 존경함으로써 복전이 될 것이고, 일반이 흠앙하여 교화는 날로 흥왕하고 부처님과 일체 중생이 다 기호할 것이다. 세속 사 람들이라도 수양있는 지성인이라면 자기의 인생관이 서있고 생의 가치를 확립코자 하거든 중생을 제도하는 스승자로서 이러한 주관 이 없이 지도자로 자처할 수 있겠는가? 대승보살행은 결코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생생하게 인생의 고락을 겪으면서 그것을 소재로 인격화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수행이기 때문에 오상성신의 불퇴 전의 각오로써 정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는 법규집의 스승사명을 인용하며 스승의 본연 자세에 충실할 것, 충단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화합과 단결, 자신의 생각

과 주장이 충단에서 결집된 사항과 다르더라도 충단의 결정에 수순하고 복종하며, 교도들의 불평, 불만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상호 대화로써 해결해야 한다는 것, 화합과 단결된 힘으로 부처님의 정제를 근검절약하여 발전하는 충지종이 되기를 서원하였다.

회음사 수현정사는 “가정집 형태의 열악한 사원구조에서 교화하기란 힘든 상황으로 외부에 불상을 봉안하는 방안과 포교수단으로 소달력을 제작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포교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변화와 개혁으로 발전하는 충단을 서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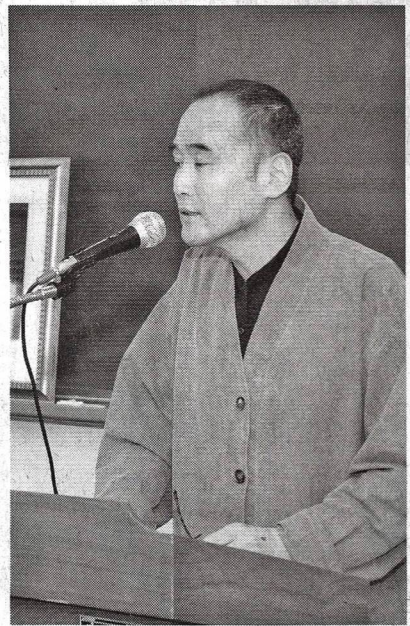
정각사 도현정사는 “충단의 현상황을 고장난 자동차로 비유하며, 먼저 충단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수정해가는 노력을 통해 충단이 발전한다”며 “시무교육과 승직자 보수교육을 통해 충단의 교육체계를 정비하여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와 복지의 시스템을 강구하여 부담없이 사원을 방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광사 우승정사는 “대구경북교구에서 논의된 15가지 발전방안을 소개하며, 개혁의 제일선은 사원의 구조조정 시골과 교화가 열악한 사원을 조정하여 신도시나 도시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며, 충단을 발전시키는 방안은 훌륭한 인재 한 명을 양성하는 것으로 인재양성을 위해 최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석사 범상인 전수는 “스승들은 교리공부에 등한시 해서는 안되고 사회가 발전하고 학력이 향상된 상황에서 교리공부를 해야 하며, 장례식장 등 상장의례시에 범부사용,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법회의식과 포교방안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보사 지성정사는 “교화에 앞서 자신의 수행이 선행되어야 하며, 스승들의 법력증진에 기울여 노력해야 한다. 사원홍보를 위해 연꽃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스승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법정원과 교육원을 상설기구화하여 언제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음사 안정 정사는 “농촌지역에서 포교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실행했지만 예상만큼 포교가 활성화 되지 않기 때문에 불상봉안만이 충단발전의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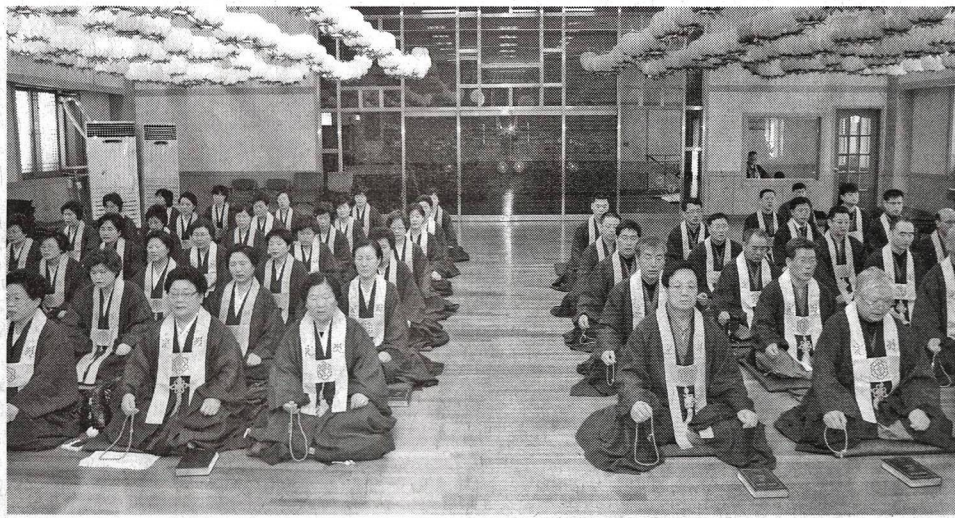


밀인사 범등 정사는 “불상봉안과 충단화합이 전제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승님들 교유의 교화 브랜드를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교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법회, 지비신행회, 위드다르마와 같은 다양한 이벤트를 개발하여 교도들의 신심을 증진시켜야 하며, 젊은 스승들을 양성, 10~15년간 수행공부를 하여 교화일선에 배치시켜야 높은 수행력과 법력으로 교화가 활성화 된다.”고 밝혔다.

△ 알릴 : 금월호 '세상사는 이야기'는 6면에 게재합니다.

# 제71회 춘계 강공회 원만회향

## ‘충단 발전방안 토론회’ 열려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 통리원에서 개최된 제71회 춘계 강공회가 원만 회향됐다.

강공회 개강식에서 효강 종령 예하는 “신록이 아름다운 봄은 만물이 생장하고 약동하며 어두움이 없는 만다라 세상 그 자체”라며 “우리 안의 부처님의 참모습도 봄과 같이 아름답고 발랄하며 생동감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종령 예하는 “강공은 충단의 모든 승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 사원에서 경험한 교화의 방편과 방안 등을 서로 교환하고, 충단발전 방안을 숙의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초발심으로 돌아가 성공적 강공이 되도록 한마음으로 노력하자” 말했다. 원승 통리원장은 “그동안 밝기 어려웠

던 원로 스승님들을 친견하고 평생의 교화 경행과 고견을 경청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춘계강공회에선 원의회, 재단사회, 사회복지재단 이사회, 종의회, 승단총회 등을 개최해 전년도 결산 심의 결의를 비롯한 제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조명했다. 이와함께 각 사원의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극락전을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우선 부산 성화사, 포항 수인사, 부산 정각사에 극락전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극락전에는 중심불로 아미타불, 지장불, 관세음불을 봉안하고 양옆면으로 수백개의 소불을 모심으로서 49재와 영식 천도불공 의식을 진행한다.

한편 ‘충단 현황과 발전 심포지엄’에선 각 교구별 2명의 발표자가 나서 충단 현황과 문제점, 발전방안과 관련한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충단은 심포지엄을 통해 도출된 세부 발전방안을 활용해 거시적 충단 발전방안을 수립하겠다는 복안이다.

### 만다라 세상

어두운 공야에 부처님은 햇불로 오셨다. 아무것도 볼 수도 분간할 수도 없는 어둠속에 빛으로 오신 것이다. 도솔천 호명 보살이 하얀 코끼리 타고 꽃구름 타고 꽃안개 타고 꽃잎처럼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모든 중생 건지시려는 크으신 자비심은 몸 아닌 몸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가지가지 방편을 베풀어 어두운 우리 마음을 밝혀주셨다.

병자에게 어진 의원이 되시고 길 잃은 이에게는 바른 길을 가리키고, 가난한 이에게는 보배를 얻게 하시며, 어둔 밤의 광명이 되시고, 영원한 깨달음의 길, 영원한 안락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날, 룸비니 동산 그날의 상서, 환희가 어찌 그날의 기쁨뿐이겠는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방편은 시작도 끝도 없이 한량없는 것이니 것을...

오늘도 하늘에 반짝이는 많은 별들의 격려 속에 어둠의 장막을 헤치며 법당에 들어서시는 나는 부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장하며 조용히 기도드리다.

나에게 언제나 믿고 의지하는 마음과 성실함을 지킬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정진하면, 어느새 내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집착 자만심은 부서지기 시작하면서 마음은 편안함으로 가득찬다.

내가 내 이웃을 나무라기 전에 나의 잘못부터 살펴보고 이것 저것 불평하기 전에 감사하고 고마운 것부터 생각해보고 남을 쉽게 비판하기보다 사랑으로 감싸주도록 늘 기도하면 자신도 모르게 내 마음은 부처님의 햇불을 따라가고 있음을 느낀다.

돌아보면 지난 나날들 아무탈 없이 우리 가족 모두가

### 부처님 햇불로 오시다

제각기 원하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작은 일에 성실하며, 건 강하고 욕심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도 부처님께서 부드럽고 인자한 미소로 지켜주시고 보살과 주춧기에 가능하였으리라.

매일 매일 부처님 전에 무릎 꿇어 기도정진토록 하신 부처님께 늘 감사하며,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작업이라 믿기에 기도생활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이어지리라.

지혜광명으로 오신 부처님은 인연의 도리와 인과의 도리를 알게 하시고 윤회사상을 일깨워주셨다. 나와 이웃하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가진 것을 나누고, 진실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 또한 중생속에 내재해 있는 불성을 갈고 닦는 것이 되리라 믿는다. 나를 괴롭히고 시기하는 이웃도 전생에 내 부모형제였거니 생각하며 부처님의 말씀따라갈 때 그런 이웃들이 변해가는 모습에 오히려 감사드리다.

햇불 같은 부처님의 무량한 광명을 마음에 담고 기도생활을 하면서부터 어떠한 괴로운 일들이 다투어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갖게 되었다. 슬픔도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믿음도 가지게 되었다.

내가 쌓은 공덕은 불우한 내 이웃에게 회향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기도생활에 정진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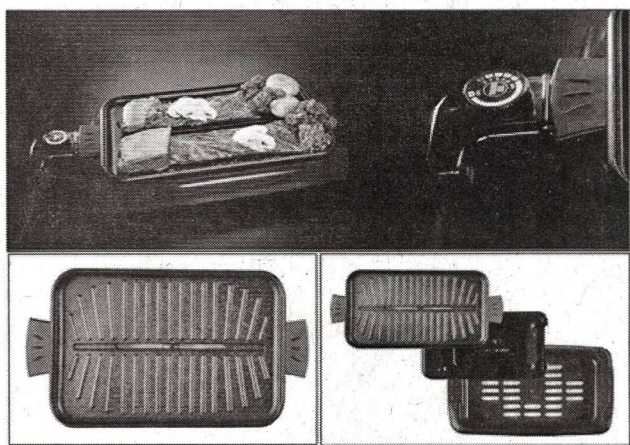
앞으로 주어진 나날들 부처님의 햇불 같은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남을 위해 아무 조건없는 생활을 하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많은 내 이웃들을 부처님의 세계에서 무한광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리라.

이것이 바로 어둠속에 햇불로 오신 부처님, 빛으로 오신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며, 영원히 부처님과 함께 하는 삶이며, 영원히 축복된 삶이기에... -순형림/ 불광 22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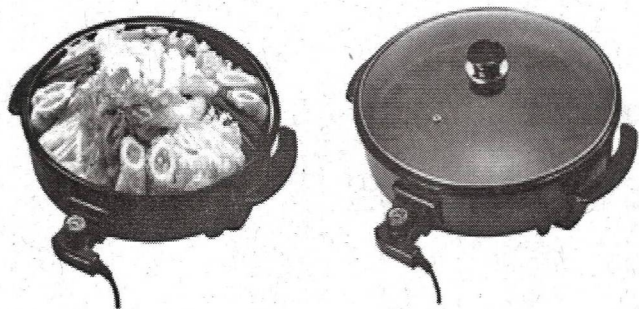
(주) 에스엠 커머스(생활가전/건강용품)

2008년 상반기 특판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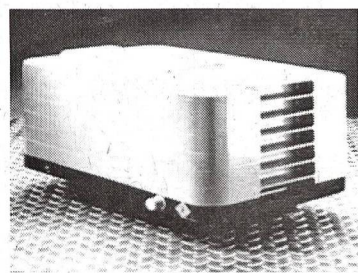
“시원한 가격에서, 고급스런 디자인에서 두 번 만족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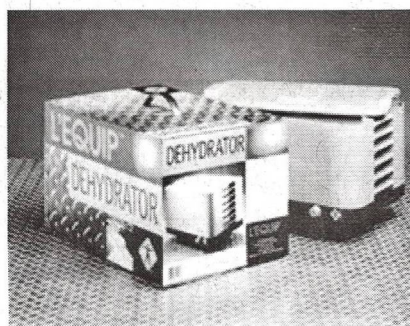
• 제품명: 대원 테이블 전기그릴 • 모 델: DWP-331  
• 특 징: 조리팬, 본체 분리형, 식탁에서 요리하면서 사용가능 골드마블코팅처리  
• 가 격: 3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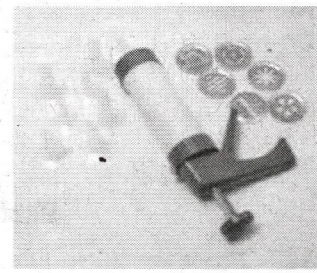
• 제품명: 피자팬 • 모 델: MU-1600N  
• 특 징: 자동 온도조절 방식, 피자, 부침, 후라이, 전골, 구이 등 다양한 요리를 손쉽게 가능  
• 가 격: 24,900



• LD-528 6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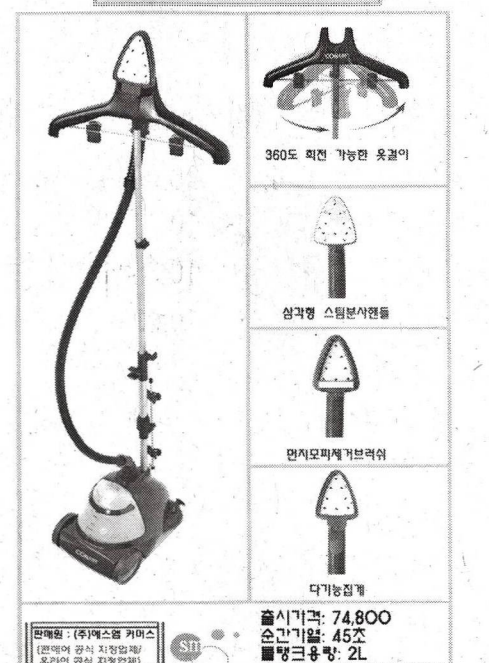
• 제품명: 음식건조기 • 모 델: LD528  
• 특 징: 과일, 야채 건조 웰빙 상품 기본6단+네트+슬리트Tray2개  
• 가 격: 소비자가 128,000(판매가 105,000)



• 리퀀저 키친(별매)

스팀다리미의 대표 브랜드... << 인기상품! >> 콘에어 스팀다리미

CONAIR GS1K Professional FABRIC STEAMER



출시가격: 74,800  
준공기: 45,000  
정공기: 45,000  
전용수: 2L  
전용수: 2L  
전용수: 2L

(주) 에스엠 커머스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름 상품 기획전을 통해 보다 편안하고 시원한 여름을 약속드립니다.

상품 구입 문의 02·3431·0388(代) 팩스 02·3431·0240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311-1번지



연등축제 이모저모

# “연등물결 부처님 세상 -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아기 부처님, “천상천하 유아독존 일체개고 아당안지”



원승 통리원장의 관육의식



봉축합창단에 참가한 총지종 서울경인 합창단



총지종 스승과 교도들의 열띤 응원



총무부장 경원정사도 VIP석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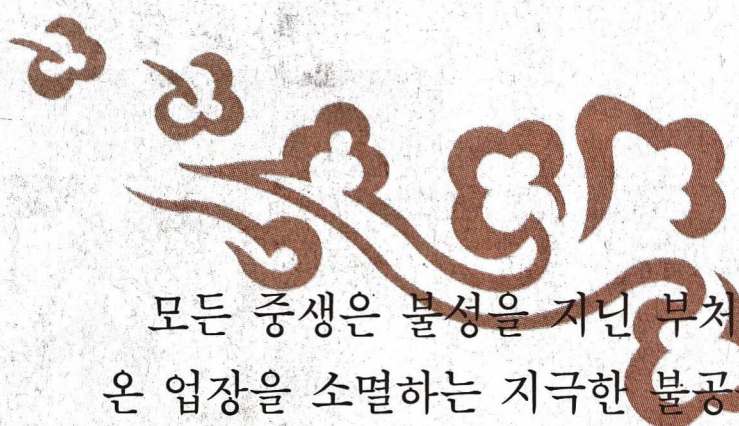
총지종 기수단



총지종 서울 경인 합창단



대회식단 전경



## 하반기 49일 불공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닌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허물을 찾아 참회하고, 전생으로부터 쌓아 온 업장을 소멸하는 지극한 불공을 해야 합니다. 모든 불자님들께서는 업장을 소멸하여 해탈을 이루시고, 항상 마음자리를 살피 청정한 부처님이 되도록 수행정진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반기 49일 불공정진으로 모든 마장을 예방하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 ◆ 일 시 : 총기 37년 5월 28일 ~ 7월 15일
- ◆ 대 상 : 총지종 교도 및 모든 불자
- ◆ 장 소 : 총지종 전 사원



불교총지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 02)552-1080~3 전승 02)552-1082 //www.chongji.or.kr